

하느님의 왕국



[5]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가인이고 그의 아우가 아벨입니다. 그 형제가 각기 하느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였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땅의 소산(所産)으로 제물을 삼아 하느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느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悅納)하지 아니하셨고 이에 가인은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ㄱ

하느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ㄴ 이르셨듯이 가인은 행실이 악하였습니다. 자기의 제사가 열납되지 아니하였다고 얼굴을 붉히는 것이 그의 악함을 증명합니다.

자신이 위주가 되어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행동하는 사람이니 감히 하느님께도 그 식으로 제사한 것입니다. 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주이신데 사람이 자기가 먹자고 농사를 지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주면 하느님께서 마땅히 뒤를 따라 받으셔야 하시는 임이어야 하고 사람이 안 주면 못 받아 잡수시는 임이 하느님이십니까?

조선 말에 높은 이를 찾아가 대면하여 보는 것을 내 이쪽이 주체가 되어 본다고 말을 앓고 수동형을 써서 뵈는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 천지의 대제신위(大帝神位)를 ㄷ 뵈는 자리건만, 가인은 인간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자신의 행실이야 어떻든, 팔을 벌리며 하늘을 향해 감사를 드린다고 하여서 ㄹ 그 감사를 받으시는 임이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ㄱ.창4:1~6 ㄴ.창4:7 요1서3:12 ㄷ.마11:25 눅12:21 계6:10 ㄹ.눅18:11

내 이쪽이 나중 되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생이 하느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선행이어야 인생이 하느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오 ㄱ. 사람의 뜻이 앞서게 되면 하느님께서 뒷전이 되어 그 자리에는 하느님을 뵈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하느님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부유하였고 지혜가 출중하였던 솔로몬 왕이 아무리 화려한 어의를 입었어도 하느님께서 입히시는 생명의 영광에 미칠 수는 없습니다 ㄴ.

아담은 죄를 짓고 하느님으로부터 임하신 생기로 말미암아 입혀진 생명의 영광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몸이 되었으나, 그는 자신의 처음 됄을 버려서 회개하였고 이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벌거벗은 몸을 다시 가려 주셨습니다.

사람의 것으로써는 ㄹ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몸을 가릴 수 없어서 하느님께서 옷을 지으셔서 입히신 것입니다.

죄가 씻겨야 비로소 짐승 같이 벌거벗긴 육신이 감춰지는 것이어서 ㄷ 하느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죄 없는 생명을 희생시키고 그것으로 인생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어서 그 지경이 되었으나, 하느님께서 그 죄인을 위하시었기 죄 없는 생명이 희생되어서 인생이 지은 죄의 값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하느님의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아벨은 그 하느님을 따라서 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느님께 올릴 제사를 위하여 양을 쳤고 ㄱ 처음 난 첫 새끼를 제물로 하느님께 올렸습니다.

사람의 몸으로서는 하느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람이 범하여서 몸뚱이가 드러나고 말았는데, 죄도 없는 짐승이 희생되어 그 허물

ㄱ.요14:21 ㄴ.마6:29 ㄷ.창3:21 ㄹ.창3:7, 10 ㅁ.계16:15 ㅂ.창4:2 ㅅ.창 6:3 출33:20 ㅆ.사13:22 ㄷ.요14:6 갈5:17

을 가렸으니 아벨도 인생으로서는 감히 대할 수 없는 하느님께 자신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양과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느님께 예(禮)를 올린 것입니다.

하느님과 인생 사이에는 인생의 죄를 대속(代贖)할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았기 속죄를 한 것이어서 ㄱ, 하느님께서 그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다고 이르셨고 또 열납하지 아니하신 가인의 제물도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ㄴ.

하느님께서 인생을 위하고 또 그와 같이 인생이 하느님을 위하는 그 양자 사이에는 반드시 어린양이 있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ㄷ. 인생은 이미 신선이 아니라 세속에서 살아가는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이처럼 처음부터 계속하여 하느님의 독생(獨生)하신 어린양을 증언하고 계십니다ㄹ.

같은 부모가 낳은 자손이어도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자기를 따라 열납하시지 아니하였다고 분노했던 가인은 결국 들에서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뱀과 같이 인생을 죽게 만든, 그 죽이는 종류가 되었습니다ㄻ.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람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뱀입니다.

가인이 자의로써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였고 하느님께도 그같이 예배하였기 그 예배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이런만, 그가 나중 난 형제를 쳐 죽인 것은 아우의 행위가 자기와 반대여서 하느님께서 그 아우를 열납하셨기 때문이니ㅂ 그는 실상 하느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ㅅ.

아담은 가인과 달랐습니다. 아담은 범죄 후 하느님이 두려워 숨었고 하느님께 죄를 범한 내력을 고백했으나 가인은 정면으로 대들어 하느님께 반항하였습니다ㅇ.

마귀라는 것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본래 있어서 인류의 시조를

ㄱ.히11:4 ㄴ.창4:4 ㄷ.요14:6 ㄹ.요5:39 ㅁ.요8:44 ㅂ.요1서3:12 ㅅ.유1:11 ㅇ.창4:9

유혹했던 것도 아니고, 들에 나가면 지금도 볼 수 있는 뱀들의 조상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뱀이고 사람이 뱀의 후손이며 ㄱ 사람이 사단이고 사람이 마귀의 자식임을 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인 나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두고 사는 나 자신이 사단입니다ㄷ.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ㄹ 사람 자신의 주체성이 마귀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께서 계신 이상, 인간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인간의 위주(爲主)로 행하는 그 주는 거짓 주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ㄻ. 거짓을 ㅂ 꾸며내어 온 천하를 미혹하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권력이 마귀의 권세입니다ㅅ.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인간 자신의 권세를 세계 만민이 숭배합니다. 사람 자신의 욕망이 마귀이고ㅇ 그 욕심에 이끌려ㅆ 미혹되는 것이어서 실상 내가 나를 의식하는 자체가 미혹입니다.

천상천하에 스스로 계신 자는 하느님 아니고는 아무도 없습니다ㄷ. 그 하느님 아닌 또 다른 자아(自我)가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임께서 계신 이상, 그 스스로 계시는 자의 뜻이 진리이고ㄱ, 그의 뜻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 자신이 있어서 나 자신의 욕망을 갖는 한, 실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느님의 계명 모두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ㄷ.

남이 흘린 땀의 대가를 도둑질하고 착취하지 않는 한, 부자가ㄹ 될 수 없으며 남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는 한, 높은 신분이ㅎ 될 수는 없습니다.

ㄱ.마23:33 ㄴ.요8:44 ㄷ.마16:23 ㄹ.창3:5 ㅁ.계12:9 ㅂ.요8:44 ㅅ.계13:7, 17:13,17~18 ㅇ.마16:23 요8:44 갈5:17 약1:15 ㅈ.약1:14~15 ㅊ.신4:39 ㅋ.요17:17 ㅌ.마5:21~37 ㅍ.마19:24 ㅎ.눅16:15

남을 미워하는 것과 살인함이 그것이 그놈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과 간음함이 그것이 그놈입니다ㄱ. 다 욕정 때문에 미워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합니다.

도대체가 사람이 사람의 뜻을 세워서 맹세하고 맹약하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ㄴ. 실상은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주제에 하느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가 되어서 걱정하는 뜻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말을 순수한 한국 말로 하면 착하다는 말입니다.

착하다는 의미는 말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귀가 밝아서 소리를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선행과 악행이 있습니다. 짐승에 비유하면 양과 같은 행위가 있고 뱀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주가 따로 있습니다. 양은 주인의 소리를 듣고 주인을 따르며 사나, 뱀은 반대로 자신을 앞으로 내어 뺨음으로써 행동하여서 옆으로 뺨어서 피하면 피했지, 물러서는 자체가 없는 물건입니다.

뱀은 욕심이 한없어서 제 몸보다도 큰 것까지 한없이 입을 벌려 살생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그대로 따라서,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내 이쪽이 희생하는 것이 선행이고 그 반대로 내 이쪽을 위하여 하느님의 권위를 도적질하고 남 저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악행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먼저 몸이라고 하던 교만을 버리고ㄷ 하느님께서 입히신 희생의 옷을 입어서 순한 양의 모습이 되었으나, 가인은 하느님을 떠나 자주(自主)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는 자주성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대신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진리는 순수한 아이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어서ㄹ 누구라도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 수가 없습니다ㅁ.

선행은 낮을 들어ㅂ 천부의 면전에서 아버지를 뵈는 것이고 악행은 그

ㄱ.마5:21~32 ㄴ.마5:33~37 ㄷ.창3:20 ㄹ.마11:25 ㅁ.마18:3 ㅂ.창4:7

반대로 하느님의 면전에 발꿈치를 들어 돌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사모하고 소원하는ㄱ 것이 무엇이오. 남보다도 높은 자가 되어서 고생 안 하고 아래 것들을 부리는 주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같이 되려는 야망입니다.

여자가 하느님같이 된다고 하는 미혹에 넘어가 부부 일신(夫婦一身) 이어야 하는 관계가 한쪽은 사모하고 한쪽은 다스리는 차별이 생겼듯ㄴ, 하느님께서 계신 이상 거꾸로 결과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서 『죄의 소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에게 가라사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사모)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ㄷ 하셨습니다. 가인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그 죄의 소원을 성취하여서 하느님을 떠나 스스로 주가 되어, 성을 쌓고 싸우며 사는 세습의ㄹ 성주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버려야 할 소원이건만 회개하지 않고 그는 그 죄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가인은 하느님의 면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지 못하고 약육강식 하는 들짐승의 종류가 되어 싸움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있어서 죄가 문에 엮드림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지어졌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국가의 권력이 창출되지 못합니다. 남을 쳐 죽인 위무(威武)가 있어서 죄를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는 부자의 문일수록 엮드리고 그 반대로 빈한한 자를 보면 멸시하며, 권력을 사모하는 자는 세도가의 문일수록 엮드리고 그 반대로 권세가 없는 자를 천시합니다.

죄를 사모하는 인간의 욕심이 바탕이 되어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ㄱ.창4:7 ㄴ.창3:16 ㄷ.창4:7 ㄹ.창4:17

그런데 죽어서 없어진 줄만 알았던 그 아벨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호소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기를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ㄱ 하셨습니다.

아벨은 속죄의 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열납 된 자입니다. 형제가 다 같이 하느님께 제사하였지만 하느님을 섬기는 예가 서로 달랐는데, 하느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열납하시었기 분노한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이요, 아벨의 육신은 비록 죽었어도 그의 혼은 하느님의 얼굴을 뵈는 ㄴ 거룩한 곳에 있어서 하느님께 그의 피를 신원(伸冤)하여 주시기를 하느님께 호소하였습니다 ㄷ.

하느님께 심판하여 주시기를 호소한 것이요, 이것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벨과 같은 의로운 자들의 원이 맺히고 쌓여서 마침내 세상에 불측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재(大主宰)께서는 공의로우시어서 의로운 자의 원통한 피를 반드시 해원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인생이 종신토록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아 식물(食物)을 먹고 사는 삶이 되었으나 하느님을 아주 떠난 몸이 되지는 않았건만, 가인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라고 ㄹ 하였습니다.

가인이 지면을 떠나는 것이 하느님의 면전을 떠나는 것이 된 것은 가인이 인생으로서 부모의 면전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ㄱ.창4:10~12 ㄴ.출25:22, 29:42~43, 30:6 ㄷ.계6:9~10 ㄹ.창4:14

하느님께서 토지를 인생의 근본이라고 ㄱ 하셨습니다. 인생이 흙에서 취하여져 나왔으니 토지가 인생의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말에 농사를 일컬어 땅을 부쳐 먹는다고 말하듯, 인생이 지면에 붙어서 어머니께서 나오는 젖을 ㄴ 빨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에게는 위에서 비를 주시는 ㄷ 천부께서 계시고 아래에는 그 비를 받아서 만물을 생산하는 땅이 있습니다. 가인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벌로 부모의 품에서 쫓겨난 것이어서 가인은 하느님의 면전을 떠나고 지면을 떠나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들짐승의 씨가 되었습니다.

옛 뱀이라고 하는 들짐승의 후손이 ㄹ 된 것입니다.

아담은 회개하여 하느님께서 입히신 옷으로써 하느님의 선한 형상을□ 입고 하느님의 권속이 될 수 있었으나 가인은 인간 자신의 힘만을 믿고 그 역량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종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태어난 셋과 가인이 씨가 다른 것은▮ 혈육의 씨가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자의 씨와 하느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의 종자입니다○.

성서에서 피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느님께서 가라사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食物)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이 말씀대로 세상은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 때문에 땅에

ㄱ.창3:23 ㄴ.레20:24 신11:9 ㄷ.창2:5 ㄹ.창3:15 ㅁ.출33:19 ㅂ.창5:3 ㅅ.창4:25 ㅇ.요8:23, 15:19, 17:14~16, 18:36 ㅈ.창9:3~6

거하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 날에 하느님께서 열납 하신 자들의 생명을 반드시 도로 으시는 것이어서 이를 일컬어 『땅에서 구속(救贖)함』 입습니다ㄱ.

땅이 입을 벌려 가인으로부터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땅에서 죽은 육체의 생명을▮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대속(代贖)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어서 가인은 실상 순간적인 삶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잃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가인의 날은 잠깐 있다 사라질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ㄷ.

악인의 육신은 세상에서 잘 살아있을지라도 그의 혼백은 생명이 없어서 바깥 어두운데 갇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생명만이 전부여서 실상 죽음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초조가 따르는 것이고 결국은 그의 악행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어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ㄹ.

가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한 아벨은 죽고, 악해서 살인한 가인은 남아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들짐승이 살생하였다고 해서 그 야수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버젓이 살아가는 표이나 하느님께서 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불 뜻이▮ 있는 이상, 이 표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떠나서 더는 하느님의 낮을 뵈올 수 없는 몸이 되어 살아가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ㄱ.롬8:23 계14:3 ㄴ.사26:19 겔37:12 단12:2 ㄷ.시78:39, 92:7, 103:1~18 ㄹ.창4:13 ㅁ.창4:15 ㅂ.계20:14~15

그에게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ㄱ.

그는 이제 더는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지면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육신을 위하여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들짐승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표를 받고 들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습니다ㄷ.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쌓은 것이 성입니다. 받을 갈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요. 결국은 얼굴에 땀을 흘려 받을 간 타인의 소득을 탈취하여 살 수밖에 없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형통(亨通)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빈천하여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행운입니다. 사람에게에는 혼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엔 정신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나, 얼이라고도 하고 넋이라고도 일컫는 혼백입니다.

산 혼이 되어 있던 아담에게 하느님께서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듯이 혼에도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서 죄를 짓는 혼은 죽습니다.

부활에는 하느님께서 땅에서 죽은 자의 생명을 으시는 첫째 부활이 있고 2 혼이 부활하는 둘째가 있습니다. 혼은 그 근본이 하느님이어서 하늘의 천사와 같은 영으로 부활하나 3 생명의 부활을 입지 못하는 넋은 그 반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 4 지옥의 귀신이 됩니다.

하느님의 생기가 임하기 전에 땅에서 취하여져 생겨난 기운이 백(魄)이어서 이 역시 바람 같이 보이지 않는 의미의 기(氣)를 붙여 기백이라는 말이 이루어졌고 사람과 같이 땅에서 취하여 지어진 짐승에도 5 있는 것이어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ㄱ. 요17:3 ㄴ. 마4:4 ㄷ. 창4:17 ㄹ. 창2:17 ㅁ. 겔18:4, 20 ㅂ. 계20:5~6 ㅅ. 마22:30 ㄴ. 눅20:34~36 ㅇ. 요5:29 ㄷ. 계20:11~15 ㅈ. 창9:5

지옥이 따 지(地)에 갇힐 옥(獄)입니다. 빛 안에서 영(신)이 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둠에 갇히는 1 것입니다.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여서 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이 백밖에는 남지 않아서 지옥이라고도 하는 음부(陰府)의 2 귀(鬼)가 됩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앞서려고 하며 남보다 더 높이 되려고 하는 죄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떠나서 남에게 입히는 모든 행위가 하나하나 죄가 되어 그 응보를 받고 맙니다.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같이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서 주어도 그 응보를 반드시 받는다고 3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무엇보다 불행한 것은 그가 하느님의 낮을 뵈옵지 못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가인은 낮을 들어 4 하느님의 얼굴을 뵈지 못하고 하느님과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알아 뵈지 못하는 몸이 되어서 설령 그가 예배하여도 하느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를 할 뿐입니다.

사람이 인간 자신의 식견으로 하느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맺어주시는 어린양께서 계시서 그의 계시로써 깨닫게 하여 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임이 하느님이십니다.

아벨이 속죄의 목적으로 어린 양을 하느님께 드렸듯이 하느님의 면전이라면 무엇보다 제 행위의 죄과부터 빌었어야 하거늘 가인은 자신의 행실과는 별도로 5 하느님을 대하였습니다.

더러운 제 행실은 묻어두고 인간이 제 몸뚱이를 위하여 일한 소득을 떼어서 그것을 감히 거룩하신 하느님께 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6 하느님께 드리는 행위는 도리어 하느님을 모욕 하는 행위입니다.

ㄱ. 마8:12, 22:13, 25:30 요1서2:9,11 ㄴ. 눅16:23 계20:13~15 ㄷ. 마10:42, 16:27 롬2:6 고후5:10 베전1:17 계2:23, 20:12 ㄹ. 창4: ㅁ. 창4:7 ㅂ. 요16:2 ㅅ. 마11:27 ㄴ. 눅10:22 ㅇ. 약2:17~21 ㅈ. 마22:21 ㄴ. 눅16:9, 11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를 따르는 선행만이 7 인생이 하느님을 대하는 길(道)입니다. 종교적 형식으로 예배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하느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천자를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천자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시며 그들 앞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 그들은 가인이 분노하였듯이 분기가 가득하여서 천자를 죽이려고 공모하였습니다.

그들이나 가인은 같은 행위를 한, 같은 종자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감히 하느님께 봉헌하여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하느님께 십일조를 바치는 행위는 돈을 좋아하였던 옛 유대의 바리새인조차도 감히 하지 못했던 행위입니다.

하느님을 위하여서라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그 불의한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찾아 누구도 모르게 돕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신 이상, 인생이 사는 동안 털끝만큼도 원통한 것은 다 해원(解冤)하시는 것이오시. 심판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치는 모든 재앙이라는 것이 우연히 닥치는 것이 아니오. 창세 이래 사람이 사람을 배척하여 침으로써 원이 쌓이고 그 원의 결과로 천벌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의로운 피를 해원 하시어 자기네를 위한 인생의 경쟁과 투쟁으로 피 밧이 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느님과 사람의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상대를 위하는 상생(相生)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어서 해원과 상생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의 골자입니다.

ㄱ.창4:7 ㄴ.눅6:9~11 ㄷ.요8:44 ㄹ.눅16:9, 11 ㅁ.마22:21 ㅂ.마19:21 ㄴ.눅12:33, 16:9, 19:8 ㄷ.약2:15 ㄹ.요1서3:17
ㅅ.창4:10 계6:10 ㅇ.창4:11 마23:35 ㄴ.눅11:51

지금은 짐승의 사조가 온 세계를 뒤덮어서 인간은 고등 동물입네, 생각하는 동물입네, 사회적 동물입네 하는 말들이 횡행하나 도덕이 있는 곳에는 사람을 일컬어 동물이라고는 말하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사람이 되라고 교육하듯이, 짐승의 삶과 인생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그 인생의 삶은 다릅니다.

짐승과는 달리 사람에게 혼이 있는 한,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씨를 받아서야 죽었던 혼이 다시 살아나 인생이 하느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어서 나의 것을 혈어 저의 궁핍을 보태고 내가 수고하여 저를 편하게 함으로써 도리어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인심이고 그것이 인정입니다.

이러한 인심을 일컬어서 인(仁)이라고도 불렀으며 자비라고도 하였고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나, 자손 대대로 지니며 살아오던 그 사랑이 금세기에 와서 급격히 식어버리고 반대로 불법이 성하고 있는 현실은 어찌서일까?

인생이 받들어야 할 하느님의 법도 대신 인간이 인간 자신의 이성을 내세우는 주의가 창궐하여서입니다.

인생은 인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인생 위에는 인생을 판단하시는 천지의 대제신위(大帝神位)께서 계시기 때문이오. 인간의 죄를 징벌하시는 그 천주께서 계시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된 저주가 일어난 것입니다.

홍수가 그냥 뜻도 없이 저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간의 강폭을 심판하시는 천주께서 계시기에 홍수가 났고 그러한 홍수로 말미암아 태고 때의 인간이 멸망하였습니다.

ㄱ.마23:9 ㄴ.마13:24~30, 31~32 ㄷ.요12:24 ㄹ.마24:12 ㅁ.마11:25 ㄴ.눅10:21 ㄷ.행4:24, 17:24 ㄹ.계6:10 ㅁ.창 3:17~18
ㅂ.창6:13

인과응보(因果應報)입니다. 아무것도 저절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응보를 부른 것이요, 천주의 허락이 없이는 사람의 생명은커녕 참새 한 마리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ㄱ.

농자를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으로 알고 죄를 지으면 천벌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남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여 신명께 예를 하듯 조상께도 예를 하였던 동방의 아시아가 지금은 서방에서 발원한 사상으로 물들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애, 말세에 온 천하를 다스리는 거대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ㄴ 짐승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본래 인류의 문명은 강들이 들린 지면에서 일어났으나 지면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 살지 않고 시민이 되어 바다에서 노략질하며 살았던 옛 도시국가에서 발생한 도시화의 사조가 동방의 제국들을 제압하고 ㄷ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일곱 머리에 열 뿔을 가진 짐승은 선지자 다니엘의 계시애 밝힌 네 야수들이 ㄹ 말세에 한 덩어리를 이루는 ㄴ 짐승입니다.

다니엘은 그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悖逆者)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고 ㅂ 예언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은 곧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느님의 어린양을 가리킨 것이어서 ㅅ 마지막 때 일어날 왕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계시로 받은 네 나라는 서편에서부터 와서 분노의 힘으로 강가에 섰던 수양을 짓밟고 제패하는 수 염소입니다 ㅇ.

털이 많은 그 수 염소에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어서 현저한 패권을 누리다가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솟아난 것이어서 ㅈ 그 네 뿔이 말세에 온 세상에 위력을 떨치는 네 패권국입니다.

ㄱ.마10:29 ㄴ.단7:3 계13:1 ㄷ.단8:5~8 ㄹ.단7:2~8 ㅁ.계13:2 ㅂ.단8:25 ㅅ.계17:14 ㅇ.단8:5~8 ㅈ.단8:8, 22

네 뿔을 가진 그 수 염소를 가리켜 성서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는』 ㄱ 수 염소라고 하셨습니다.

분노하여서 아우를 죽이고 지면을 떠나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ㄴ 가인의 성(城)과 상통하는 계시입니다.

성서는 그 수 염소를 일컬어 동방의 강가에 선 미디어와 페르샤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ㄷ.

그 헬라 왕은 바다에서 일어났던 도시국가 전사의 후예임을 자처한 왕이었고 그 도시국가는 농사를 짓지 않고 전쟁하는 것으로 살았던 옛 가인의 성과 ㄹ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의 전통은 다시 현저하게 패권을 누리던 로마제국으로 이어졌고 그 로마제국이 쇠망하면서 그 토대에서 말세에 사대강국이 차례로 일어나 온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어서 말세에 온 천하를 뒤덮는 사상이 결국은 들짐승인 옛 뱀의 사상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가인의 성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수천 년을 받을 갈며 살아오던 동방의 백성마저 온 천하를 제패하는 서구 열강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변모하여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인륜과 도덕을 현 싹처럼 버리고 오직 재화만을 추구하고 살벌하게 경쟁하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가까워서 이 땅 위의 패역한 자들이 가득한 즘으로 ㄹ 변모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몸을 숨긴 아담에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라고 ㅂ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생기로 말미암아 자신을 감싸았던 생명의 영광은 ㅅ 감쪽같이 벗겨지고 적나라한 자신을 자각하는 눈이 뜨였기 도리어 신령이신 주 하느님의 낫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ㄴ.

ㄱ. 단8:5~8 ㄴ. 창4:14 ㄷ. 단8:20~21 ㄹ. 창4:16 ㅁ. 단8:23 ㅂ. 창3:11 ㅅ. 눅12:27 ㅇ. 창3:6~8

마귀의 미혹은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지혜라고 하고 성서는 이것을 미혹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ㄷ.
신령이 따로 계셔서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믿는 유치에서 벗어나 인간 자신이 주, 곧 하느님이 되라는 것이오 ㄴ.
나 자신이 주인이 됨으로써 나는 전연 다른 종자가 됩니다. 이 주의 사상에 물들면 설령 나 자신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여도 자칭하는 말일 뿐입니다.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ㄹ 나 자신이 있는 한, 하느님을 위하여 내 이쪽을 희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어린양께서 하느님을 이같이 믿는 자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 이라고 ㅂ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느님께 예배하였어도 하느님을 섬기다가 희생된 아벨이 있고 자신을 위하여 형제를 처죽인 가인이 있는 것 같이, 서로 반대되는 선과 악의 종자가 있어서 ㅅ 그 악의 자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일단 사람을 자기의 종자로 만들어서야 이 땅 위에 그의 나라를 ㅇ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자아의식을 가져야 스스로 계시는 하느님을 대적할 수 있고 사람마다 주체의식을 가져서야 참 주체(主帝)이신 그 하느님을 대적하는 그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개개의 씨알들이 주체가 되어서 집단으로 단결하여 ㅅ 이룩하는 성(城)과 대(臺)가 마귀의 나라입니다.
불량한 자가 패거리를 이루어 싸우듯, 바벨의 성은 인간이 자기네를 위하여 인간의 힘을 모아서 도전하는 인간의 성입니다.

ㄷ. 계20:3 ㄹ. 창3:5 ㅁ. 요8:44 요일2:4 ㅂ. 마12:34, 23:34 요8:44 ㅅ. 마 13:24~30, 36~43 ㅇ. 마12:26 계13:1'8
ㅈ. 창11:1~9 마13:30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마당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ㄱ 하신 하느님의 계명은 무의미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ㄴ 계명이 있으나, 민주주의의 사상으로 의식화된 사회에 늙은 부모를 모시며 사는 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커녕, 부모의 얼굴조차 안 보고 사는 터에 공경이 무엇이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여서 자식은 장성하기까지 그 부모에게 의지하여 보육 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여서 그 부모는 죽기까지 자식에 의지하여 보필 되어서 자식은 어디까지나 그 부모의 것이고 부모 또한 어디까지나 그 자식의 것이었건만, 지금의 세상에는 종속은 없어지고 서로 주체가 되어서 실상 부모는 자식을 잃고 자식은 부모를 잃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가 되어서 사회조직에 종속될 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각자가 되어 자기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사회에 바쳐야 그 나라는 그만큼 강대하여 집니다.

결혼을 하였든, 아니 하였든 내가 좋아하는 여성과 내가 좋아하는 정사(情事)를 벌이는 사생활의 권리 앞에 간음죄는 없습니다.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선진 사회에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미개한 나라에서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바깥 일로 수고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안 살림을 하여서 부부가 서로 상대를 소유하였던 것이나 그렇게 상대를 위하여 수고하여서는 이 세상의 국가는 강력하여질 수 없습니다.

각자 모두가 사회의 일군으로서 사회에 헌신하여야 그 각자 모두를 지배하는 권력만이 강대하여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와 부부 사이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사이가 되든지 인간과 인간의 사이는 모두 같습니다.

ㄱ.신4:10, 6:2, 13, 24 ㄴ.신5:16

형제 사이든, 친우 사이든, 이웃 사이든, 노소 사이든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수천 년을 내려오며 그 사이를 맺었던 인류가 균열하고 그 대신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친척도 멀어져서 촌수가 사라지고 이웃도 소원하여져서 이제는 서로 담을 쌓고 비밀리에 살아갑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경쟁하고 투쟁하는 관계로 변모하였습니다.

서로 싸워야 그 사이에 강자와 약자가 생겨서 약자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설립됩니다.

내몸같이 사랑함으로써 서로 「우리」가 되어야 할 관계가 다 끊기고 이제는 저마다 고독 속에 빠진 개인주의자가 되어 국가에서 발행하는 재화만을 위하여 심혈을 바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회라는 개념은 농경으로 살던 곳에서는 있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경쟁과 투쟁의 사이로 변하면서 전에 없던 덩어리가 결성되는 것이 사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회사나 사회가 같은 뜻글로 이루어졌듯이 그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 자기 쪽의 권익을 위하여 약소한 쪽을 압제하려고 집단으로 뭉친 조직입니다. 요즘에는 깡패를 조직이라고도 말하듯, 남을 치고 빼앗으려면 패거리를 지어서 세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쳐서 소유를 빼앗고 자기의 노예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네끼리 패거리를 이룬 것이 도시국가의 원천이고 그 도시국가들은 또다시 더욱 강하고 커다란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신전과 신상을 세워서 서로 같은 종자로서의 동맹을 다졌습니다.

그 우상 아래 함께 모여 자기네의 신을 받드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범국가적 사회가 조직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의 신화를 창작하였는데, 창작한 신의 형상이 무력으로 싸우는 전사인 것은 그들의 삶의 바탕이 약한 자를 무력으로 쳐서 노예를 만들어서 부려 먹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헬라(그리스)에 노예들을 거느림으로써 여가를 누리던 전사들을 의미하였습니다. 당연히 도시 안에는 시민의 여가를 즐겁게 하여 줌으로써 살아가는 흥행꾼들이 생겼습니다.

그 흥행꾼들의 공연 중에서 전사들을 신들로 꾸며서 만든 작품들이 전사들의 환심을 지대하게 불러 일으켜서 모든 시민이 즐기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신화가 크게 흥행이 된 이유는 서로 권력을 빼앗고 시기하고 살인하며 모함하고 간통하는 그들 자신의 형상을 신으로 만들어 높이 세워서 그들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신화 속의 주신이 자기 형제들과 작당하여서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쟁취하여 서로 이율배반적인 투쟁과 질서의 신으로 묘사되었듯, 투쟁으로 시작하여서 압제의 성(城)과 대(臺)를 세운 자신들의 모습을 신으로 극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노릇은 그 공상의 신들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숭배하며 신탁을 받는 귀신으로 둔갑한 사실입니다.

회사나 사회의 그 사(社) 자가 땅 귀신 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반대로 악한 인간이 자신들의 형상대로 악의 신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요, 이 사상이 말세에 관하여 다니엘이 예언한 세력의 신입니다ㄱ.

말세의 저들은 조상 같이 무슨 신을 믿고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것은 실상 아무 신이든지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ㄴ.

오직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 자신의 능력을 믿을 뿐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느님입니다.

이제 인간은 사회라고 하는 그 땅 귀신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내신 하느님의 종자가 아니라 반대로 악한

ㄱ.단11:38 ㄴ.단11:37

사람이 만든 그 악한 우상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말세에 무력을 바탕으로 강국이 된 열강들이 서로 연맹하여서 ㄱ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범국가적 지배조직에 의하여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몽치고 또 몽친 한 덩어리가 되어 급기야는 세계 만민의 이마나 손에 그 덩어리의 분자를 표시하는 표를 박아ㄴ 꼼짝 못하게 묶어서 통제하는 엄청난 권력으로 둔갑합니다.

비로소 사탄은 천하 만민을 묶어 사지로 몰아들임으로써 그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종자가 되어서 가인이 받은 표를 받는 것입니다ㄷ. 그들 속의 혼은 이미 죽어서 산 몸뚱이만 남아 살아가는 것이어서 그들이 받는 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하느님을 떠나서는 인생은 저마다 죽은 자입니다ㄹ. 인생에게 생명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인생의 죄를 대속(代贖)하시려고ㄹ 세상에 오셨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떠난 인생을 하느님과 이으시어서 하느님의 생명을 인생에 주시기 위함입니다ㅁ.

가인이 살인을 하고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고 또 하느님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독생자를 죽였으며 그 독생자께서 보내시는 그의 종들을 죽이는 자들이 모두 권세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고 그 권세도 실상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입니다ㅂ.

사탄이 본래 자기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든 땅이든 하느님 외에 또 다른 권세는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있을 수 있습니다ㅇ.

ㄱ.계13:1~2 ㄴ.계13:17 ㄷ.창4:15 ㄹ.마8:22 ㅁ.요1:29 ㅂ.요3:16 ㅅ.요19:11 ㅇ.요19:11

창세 이래 모든 혼백이 세상에서 살아생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나ㄱ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상제께서 증언하신 것이 아니요.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 임하옵는ㄴ 나라를 증언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세력이ㄷ 멸망하여야 대명 천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육체를 멸하시는ㄹ 하느님의 진노입니다.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휘몰아치는 대 환난(患難)입니다.

문제는 그날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서 ㄱ 세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때 느닷없이 환난이 닥쳐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를 깨닫지 못하나, 천자의 약속을 믿고 그 주를 기다리는 사람까지 깨어나 머리를 들지 못하면 ㄴ 그는 외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상제께서 오시는 때가 노아 때와 같습니다. 도적이 느닷없이 닥치듯 큰 환난이 일어나면서 상제께서 불현듯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누 천 년을 내려오던 세상이 급자기 도시화하면서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 성하므로 사랑이 식어서 ㄷ 인간이 서로 적대하는 살벌한 세상으로 돌변하였습니다.

성서의 예언대로 어제가 옛날같이 급변하는 것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문턱에 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천지를 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천지가 폐하는 것은 하느님의 천지창조가 실패라는 뜻이 됩니다.

하느님에게는 하루가 천 년과 같고 또 천 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 기록된 제 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진리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ㄹ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ㄱ. 계20:11~15 ㄴ. 마4:17, 6:10 ㄷ. 눅22:53 ㄹ. 마24:22 ㅁ. 마24:37~39 ㅂ. 마24:42~43, 25:13 ㅅ. 막13:35~37 ㄷ. 21:28 ㅈ. 마24:51 ㅊ. 마24:12 ㅋ. 베후3:8 ㅋ. 마6:10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에 임하옵시고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시고 ㄱ 안식하시는 ㄴ 것입니다.

여섯째 날의 어둠에서 다시는 밤이 없는 ㄷ 하느님의 제 칠 일로 뒤집혀서 다시는 세상이 인간의 잔폭(殘暴)이 없는 명천(明天)으로 개벽 됩니다.

선천의 묵은 세대가 지나고 후천의 새 세대가 ㄴ 열리어서 개벽입니다. 이것이 창세이래 하느님께서 맺으신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벌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또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을 ㄱ 해원하시는 것이어서 세상에 속한 자와 어린양계 속한 자의 명암(明暗)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던 권력의 성이 무너지고 그 대신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서 하느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부활하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는 세상으로 ㄴ 뒤집힙니다.

살인을 하였어도 여전히 자기네 성을 세우고 경투로 살아가는 가인의 종류는 죽고 희생된 아벨의 종류는 살아나는 해원(解冤)입니다.

하느님과 사귀었던 ㅅ 아브라함과 같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랐던 그 무아(無我)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그 무아의 경지가 바로 하느님과 동행하는 ㄷ 믿음입니다. 사람이 장성하며 보고 듣는 데 따라서 사상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나 어린 아이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맹신할 수록 그 말씀의 이치가 마음으로 깨달아 집니다.

ㄱ. 계21:6 ㄴ. 요5:17 ㄷ. 계21:15, 22:5 ㄹ. 눅16:8 ㅁ. 계6:9~11 ㅂ. 계20:4~6 ㅅ. 사41:8 약2:23 ㅈ. 창5:24, 6:9 ㅊ. 마11:25

믿음이 있는 자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영역을 초월하여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현실의 이면에 그 현실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에까지 그의 역량이 미치지 때문입니다.

본래는 선과 악이 따로 없고 하늘과 땅의 격차가 따로 없었던 것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생기고 땅이 저주를 받아 ㄷ 성(聖)과 속(俗)의 격차가 벌어졌으며 남존여비의 차별이 생겼습니다 ㄹ.

하느님께서선하신 임이시오 ㅁ. 하느님의 낙원은 선하신 하느님의 빛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버리시고 아담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어서 아담의 종노릇을 하셨던 것과 같이 ㅂ 인생 또한 하느님의 종이 되고, 그와 같이 남자는 남자의 주권을 버려서 여자에게 종속한 여자의 소유가 되고 여자 또한 당연히 남자의 소유가 되어서, 서로 상대를 떠받들기만 하는 나라가 ㅅ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서로 주가 되려고 투쟁하는 세상 나라와는 반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이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서로 상대이고 임금과 백성이, 부모와 자식이, 남자와 여자가, 노인과 소년이 상대이며 나와 네가, 내 집안과 이웃집이, 내 민족과 이웃 민족이 상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여 지성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ㅇ.

그와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가 첫째이듯,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사이든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ㅈ 그 사랑으로 서로서로 하나가 되어, 하느님과 이 땅의 모두가 다 하나의 한 「우리」 가 ㅊ 되는 나라입니다.

ㄱ. 마14:31, 17:14~20, 21:21 막9:23, 16:17 ㄴ. 창2:17, 3:5 ㄷ. 창3:17 ㄹ. 창3:16 ㅁ. 마19:17 ㅂ. 창2:19~20, 요13:14~17 ㅅ. 눅9:48, 22:24~27 ㅇ. 마22:37~38 ㅈ. 출20:12 마19:19 ㅊ. 요11:52, 17:11, 21~23

하느님을 위하여 살았던 아벨은 죽고, 하느님을 떠난 가인은 세상에 남아 후손들을 낳으며 성(城)을 ㄱ 쌓고 살아가던 세상에, 가인의 줄기가 아닌 다른 종자가 태어나서 하느님과 끊겨 있던 맥(脈)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 하느님께서 점지하신 세 번째의 셋입니다.

아담이 셋째를 낳고서 『하나님이 내게(아담에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 다고 하였고 ㄴ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성서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른 씨를 주셨다』 가 아니라 『다른 씨를 점지하셨다』 입니다.

가인이나 셋이나 다 같이 아담이 낳은 씨건만 성서에는 다른 씨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이름이 남자를 의미하는 어휘입니다.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ㄷ 한 말아들과는 계통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득남하였다』 가 아니라 아담이 남자여서 남자가 『남자를 뺐어냈다』 입니다.

조선 말에도 사람에게는 새끼를 친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을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새끼를 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셋은 짐승과 같이 혈육으로 뺐어가는 혈육의 씨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점지하시는 점지의 배달입니다.

쌀 미(米) 변으로 이루어진 정(精)과 신이 결합하여 정신(精神)이라는 어휘가 생겼듯이, 그 육신의 생명이 하느님의 신을 받아 태어난 정신, 곧 혼의 맥입니다.

성서는 이 셋째의 셋을 『아담이 백 삼십 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 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라고 ㄹ 하셨으니, 아담의 형상이 무슨 형상이기에 그 셋째만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ㄱ. 창4:17 ㄴ. 창4:25 ㄷ. 창4:1 ㄹ. 창5:3

아담은 벌거벗은 짐승의 형상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자기의 나중 몸이라던 여자를 거꾸로 일컬어 『모든 산 자의 어미』 라는 ㄱ 뜻으로 하와라고 고쳐 불렀기 하느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인생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죄 없는 몸을 희생시키셔서 그것으로 몸을 가려주셨기나 아담의 형상은 이제 주인을 따르는 양의 형상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속죄를 받고 희생물의 모습으로 변모한 형상입니다.

남자로서 여자에 대하여 처음 몸이라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중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 함으로써 아내와 같이 자기도 나중 몸이라고 하는 여자와 한 몸이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몸이 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몸이 되었고 셋째 아들은 가인과 같은 남자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과 같이 양의 형상을 한 종류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모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서 벌거벗은 짐승의 형상을 한 씨와 하느님께서 입히신 옷으로 벌거벗은 몸을 가려서 어린양의 형상을 한 하느님의 씨로 나뉘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듯이 성서의 말씀은 이같이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씨의 줄기를 말씀하신 것이어서 얼굴에 붉은 핏기를 띠었던 가인이 들에서 쌓은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고ㄴ, 하느님께 열납 된 아벨 대신 하느님의 점지를 받아 출생한 셋도 아들을 낳고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붉은색의 근원은 아래의ㄴ 홀이오, 흰이 죽은 자의 계통이 아니라 위의 하느님으로부터 연유하는 산 자의 계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ㄱ.창3:20 ㄴ.계3:17~18, 7:14 ㄷ.창3:21 ㄹ.창4:17 ㅁ.창4:26 ㅂ.요8:23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어린 양을 드러서 희생된 아벨과 그 아벨 때문에 점지 받아 태어난 셋의 삼위(三位)는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어린 양의 대신(代身)이었던 ㄱ 이삭과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야곱의 삼위와 같습니다.

마귀의 원수는 여자이고 여자의 후손이지ㄴ, 남자가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장자가 있었건만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시는 말씀이오.

또다시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붉다는 뜻의 이름)가 있건만 같은 부모를 가지고 세상에 같이 불어 나온 쌍둥이라도 하느님께서 나중에 나온 야곱만을 점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는 육신의 씨가 아닙니다. 야곱이 어미의 태에서 이미 점지 되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하느님의 예언이 있듯이ㄴ 미래에 이 세상을 이기고 왕들이 될ㅁ 언약의 자손을ㅂ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ㄴ 야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느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고ㅇ 그 중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 주신ㅈ 이름입니다.

여섯째 날, 짐승과 같이 흙에서 취하여져 생겨난 사람이ㄴ 하느님으로부터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ㅋ 생기를 받아 사람이 산 혼이 되었듯이ㄷ, 희생(犧牲)의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느님의 영을 내려받아ㅍ 태어나는 하느님의 자손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것 같이 산 혼이 된 아담은 들에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동산에서 모든 생물에 이름을 주던 **왕**입니다.

ㄱ.창22:13 ㄴ.창3:15 ㄷ.창35:10 출4:5 말1:2~3 ㄹ.창25:23 ㅁ.계2:26, 3:21, 20:4~5 ㅂ.행2:25 ㅅ.창32:28 ㅇ.창17:5 ㅈ.창17:19 ㅊ.창2:7, 19 ㅋ.요20:22 행2:2 ㅌ.창2:7 ㅍ.요20:22 ㅎ.창4:19

아담은 하느님으로부터 임하신 생명의 기운을 받고 산 혼으로 변화되어서 하느님의 동산을 거닐던, 위풍이 당당했던 왕이었습니다 ㄱ.

아담이 이처럼 하느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였지 자신이 그러한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주께서 도리어 인생을 위하여 봉사하셨던 하느님과 같이 ㄴ, 아담도 이를 본받아 하느님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여 봉사하는 종이 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ㄷ 하였건만 그 아내를 소유만 하였기 ㄹ, 여자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고 ㅁ 결국 그 내외는 하느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일컬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하여서 자기로부터 라는 그 자기의 위주가 교만이고 불의입니다 ㅂ. 한몸이 되어야 할 아내를 차별한 아담의 정의가 바로 여자에게 욕망을 일으킨 원인이어서, 예언서에 하느님의 성산(聖山)을 거닐던 왕을 일컬으시어 범죄한 그룹이라고 ㅅ 말씀하셨습니다. 선후가 있으면 그 처음이 양(陽)이고 상하가 있으면 그 위가 양이며 안팎이 있으면 그 밖이 양이고 대소가 있으면 큰 것이 양이며 강약이 있으면 강함이 양이고 남녀가 있으면 그 남자가 양이며 주종이 있으면 그 주가 양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하느님께서 계시는 이상, 인생이 양(陽)이 되면 그것이 악이고 마귀입니다.

성서는 율법의 첫 책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계시까지 처음 것을 폐하시고 나중을 세우시는 말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인류의 조상은 자신의 그 처음 됨을 버리고, 나중 몸을 『모든 산 자의 어미』 라고 고쳐 불러서 ㄷ 다시 산 자가 되기를 소망하였고 희생물의 가족으로 입혀진 양(羊)이 되어 살았습니다 ㅈ.

ㄱ.시15:1 사51:3 겔28:14 ㄴ.창2:18~22 마20:28 요13:4~5, 12~15 ㄷ.창2:24 ㄹ.창3:12 ㅁ.창3:6 ㅂ.겔28:15 ㅅ.창3:24 겔28:14, 16 계4:6 ㅇ.창3:20 ㅈ.창3:21 겔34:15 요10:15

회개는 이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느님으로부터라고 하는 하느님의 나중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아담은 자신이 위주가 되어 살지 않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어서 당신의 신께서 생산하신 아들에게 당신의 주권을 물려 주신 ㄱ 하느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지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ㄴ 하신, 그 여섯째 날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느님의 자손이 아닙니다. 율법의 첫째 장에 창조된 사람의 생명과 일곱째의 빛께서 으뜸이 되어 계시는 둘째 장에 사람이 「산 혼」 이 되었다고 ㄷ 말씀하신 그 산 자는 다른 생명입니다. 여섯째보다 나중에 탄생하신 거룩한 생명의 빛이 있어서 ㅅ 그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생명입니다.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여자는 할례(割禮)라고 하는 의식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느님의 어린양을 모시는 자는 더는 남자가 아닌 신부(新婦)입니다 ㄹ.

하느님께서 계시는 이상, 인생은 누구나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 위의 신분이 되지 않고, 사람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나중이 되고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며 아래가 되고 적은 자가 되며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도 비유로 인생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서의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뱀을 마귀의 종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나 성서에서는 뱀을 단순히 처음이라고 하는 그 양(陽)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뱀입니다.

ㄱ.마21:38, 28:18 ㄴ.창1:28 ㄷ.창2:7 ㄹ.마9:15, 22:2, 25:1~13 계21:9 ㅁ.마16:24 요8:12, 10:4, 27 ㅂ.요15:4
ㅅ.마18:4, 23:6 눅11:43, 14:7~11, 20:46 ㅇ.눅9:48, 22:24~27 ㅈ.마20:27, 23:11 요13:14~17 ㅊ.요3:14

하느님의 양위 중에는 나중이시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하신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속설에 뱀이 승천하여 용이 되었다고 말하듯이,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하늘로 치켜세웠고, 붉은 불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모세가 높이 치켜든 그 누런 뱀을 우러러보면 죽지 않고 사는 것이어서, 그 누런 뱀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한 인간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모세의 그 놋 뱀이 당신을 비유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서에는 인생을 죽이는 뱀과 인생을 살리는 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붉은 용과 놋 색의 황룡입니다.

천하를 미혹한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먼저 왕 노릇을 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고 있고 십자가의 희생으로써 세상을 이기신 황룡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을 할 임금이 있습니다.

옛 애굽의 왕들이 황금으로 뱀을 만들어 붙여서 신의 아들로 상징하였듯이 동방의 사람들이 용상, 용안, 용포 등으로 표현하여서 용을 임금으로 상징하였고 황포(黃袍)를 입은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천자(天子)라고 하는 호칭은 하늘에 계신 독생자의 호칭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감히 만왕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군대,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권세로부터 빼내실 때,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오직 지팡이를 잡고서야 각가지 이적들을 일으킬 수 있어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고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백성을 살렸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느님께서 뱀이 되게 하시어서 애굽의 뱀을 잡아먹게 하셨습니다.

애굽이 지배하던 세상에 하느님의 계시가 모세라고 이름하는 히브리

ㄱ.요18:37 ㄴ.민21:4~9 ㄷ.요3:14~15 ㄹ.요12:31, 14:30, 16:11 ㅁ.요16:33 ㅂ.계5:10, 20:4, 6, 22:5 ㅅ.단8:25
계17:4, 19:16 ㅇ.출7:4, 12:17, 41 ㅈ.출4:17 ㅊ.출14:16 ㅋ.민20:11 ㅌ.출4:3, 7:10~12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세상의 나라와 상반된 것이어서 문제입니다.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근본이 사람을 부리는 자와 부림을 받는 층이 있어서 밑바닥에서 부림을 받는 계층이 혹사하여 지배자의 웅대한 부와 권력이 세워지거늘, 하느님의 말씀은 그 애굽 왕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짠 백성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으로서는 그 말씀이 날벼락과 같습니다. 그 히브리 백성을 내 놓는 것은 권력의 기반이 빠지는 것이어서 하느님의 계시가 애굽 왕과 그의 족속에게는 번민거리입니다.

성서 예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재앙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임이 아니십니다. 천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선포하신 자체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성서의 출애굽기(出埃及記)는 지난 역사에 불과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손 대대로 지키게 하시어서 온 천하 인류가 직면할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하여 거울을 삼도록 하신 교훈입니다. 한낱 역사가 아니라, 온천하에 대한 운명을 모형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계시를 따르는 하느님의 백성과 재앙을 내리시는 하느님을 훼방하는 백성으로 나뉘어서 전쟁하는 세대가 이르렀습니다.

어느 민족은 하느님의 백성이고 어느 민족은 우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붉은 용이 천하 만국을 미혹하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

ㄱ. 요16:8 ㄴ. 마10:34 ㄷ. 눅12:51 ㄹ. 출12:25~27 ㅁ. 출9:16 ㅂ. 계5:9, 18:4, 21:3 ㅅ. 계13:6, 16:9, 11, 21 ㅇ. 계11:7, 16:14, 19:19 ㅈ. 계12:9, 20:3 ㅊ. 계13:7

입니다.

온 인류가 속아서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의 종교인들이 겉모양은 하느님을 숭배하면서 실제로는 성서의 하느님이 아닌 주를 받들도록 하여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을 참소하고 그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듯이, 같은 새끼 양의 모습인데 속은 노략질하는 자들이 칠두십각(七頭十角)의 짐승을 받들도록 천하 만민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의 유일하신 주이시건만 옛 유대의 종교인들은 자기들만의 신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천지의 대주제를 자기 쪽에 꺾었습니다.

성서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어서 그 민족의 앞에 복과 화를 두셨건만 그들은 스스로 지켜야 할 그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축복만을 발설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스스로 복종하여 지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위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성서의 하느님께서 그 민족에게 이방 나라의 사상을 좇지 말고 오직 계시의 말씀만을 좇을 것을 누누이 가르치셨으나 그들은 그 교훈을 저버렸습니다.

하느님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방의 사상에 오염되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의 권력과 야합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계명과 그 계율의 법이 없었더라면 세상의 세력과 함께 한다고 하여서 불법일 수 없으나 그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받은 이상, 세상의 권세와 짝하는 것은 음녀(淫女)의 짓이 됩니다.

하느님과 세상의 권세를 분리하여 하느님의 주권을 그들 스스로 부정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ㄱ. 계13:14, 18:23 ㄴ. 신29:26, 31:16, 32:15~27 ㄷ. 계13:11 ㄹ. 마7:15 ㅁ. 계13:12, 15 ㅂ. 마7:13 ㅅ. 계17:15, 18:23 ㅇ. 사37:16 ㅈ. 신11:26, 30:15, 19 ㅊ. 요7:19 ㅋ. 렘14:15, 23:17 ㅋ. 요19:15 ㅌ. 계17:1~5

여자가 남편 외 정부를 가지면 그것이 음녀이고 신하가 또 다른 임금을 가지면 신하가 아니라 역적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상반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임금을 받들으로써, 성서의 예언 그대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성서의 그 『우리』 이신 하느님내 중 하나이신 인생의 참 주를 저주하고, 이민족이 제단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황제를 그 이민족과 한 덩어리가 되어 섬긴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의지하고 선택했던 그 권력이 도리어 그들과 그 백성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게 멸하였고 국토가 없는 백성이 되어 근 이천 년을 열방에 흩어져 온갖 멸시와 학살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 혈족입니다. 그 백성은 온 천하 인류에게 모형이 되어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족이라도 그토록 재앙을 받았건만 하물며 하느님이라고는 그 존재조차 모르던 족속들이 하느님과 그 나라를 알게 하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며 옛 유대인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면 그 결국이 어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禍)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입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활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의 행위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오. 화평이 아니라, 반대로 분쟁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ㄱ. 약4:4 요1서2:15~17 ㄴ. 요19:15 ㄷ. 사29:3 렘6:6 눅19:41~44 ㄹ. 마3:8, 7:19, 21:43 ㅁ. 마7:22 ㅂ. 마10:34~38
눅12:51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평화의 사자(使者) 모양 화해를 선전하고 많은 사람을 향하여 손을 치켜세우며 축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가증한 음녀로 계시하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짐승을 타고 앉아 그 권력과 한 통이 되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진실한 일꾼들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달콤한 소리가 아니면 미혹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학대를 받은 것은 달콤한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손을 들어 축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하와 백성이 임금의 부르짖는 말이 주상(主上)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느님이 주입니까. 하느님만이 이 땅의 인생이 의지하여야 할 대상이고 하느님만이 따르고 숭배하여야 할 인생의 주이십니다.

천사께서 이 땅의 만민 앞에 복과 화를 놓으셨습니다. 아무개는 복이 있고 또 아무개는 화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화가 있을 그 아무개는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입니다.

유대교의 선생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도 받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외식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까지나 영적 나라이고 사람의 육신이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영적 나라의 영적 임금이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신으로 따라야 할 자는 세상 나라의 권세입니까?

ㄱ. 눅16:15 ㄴ. 눅6:26 ㄷ. 계17:1, 5 ㄹ. 마7:15, 24:11, 24 계19:20 ㅁ. 계3:17, 18:7 ㅂ. 계17:3 ㅅ. 계17:2 ㅇ. 계17:6
ㅈ. 렘26:8~12 ㅊ. 삼상8:7 ㅋ. 마23:13 눅11:44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육신이 부활하신 것이요, 영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육신이 승천하셨고 그 육신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면 그 육신이 그리스도이시지, 그 그리스도께 신성이 따로 있고 인성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과 그 육체가 부활하신 것과 악인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여서 미혹하는 자입니다.

가까이 왔다고 증언하신 그 천국이 오로지 죽어서 영혼들이나 가는 영적 나라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육체로 이 땅에 계셔서 ㄹ 친히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려고 ㄱ 오시는 것이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오리라고 하는 적(敵) 그리스도가 반드시 먼저 나와서 배도(背道)하는 일이 ㄴ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열국의 지도자들의 지도자로 위임 되어서 ㄷ 민족 간의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질서와 평화를 인류의 힘으로 성취하였음을 선포하고 때와 법을 변경하여 인류의 새 기원과 새 질서로 공포하는 ㄹ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인용하여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배도할 도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짓 그리스도이고 그가 만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는 때가 갑자기 펼쳐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지하는 자는 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천하 만민이 복종하여야 할 하느님을 인류의 신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화를 내리시는 주를 용서와 축복과 평화의 신으로 왜곡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세계 만민이

ㄱ. 요1:14 ㄴ. 요일4:2 ㄷ. 요이7 ㄹ. 마26:29 눅22:18 ㄱ. 계19:15 ㄴ. 살후2:3 ㄷ. 계17:12~13 ㄹ. 단7:25

재앙이 이르는 때에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이 뭉쳐서 싸워야 할 인류 공동의 적으로 규탄합니다. 그들의 인도를 받은 자들은 이미 인간 자신의 주체성으로 뚝뚝 뭉쳐 있어서 별을 받아 죽으면서도 그 별을 내리시는 하느님을 훼방하며 ㄱ 죽는 것입니다.

성서는 만국을 미혹하여서 천하를 장악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보좌를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ㄴ 하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조상을 미혹하였던 그 옛 뱀이 붉은 용이고 그 용이 ㄷ 열 뿔 가진 붉은 짐승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ㄹ 그 짐승은 붉은 옷을 입은 음녀에게 만민을 지도하는 권리를 주어서 ㄱ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삼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이상,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음녀가 제아무리 큰 성(城)이어도 붉은 용은 실상 진주(眞主)의 모략에 이용되는 한낱 멸망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느님께서 선악을 나누시어 심판하시는 도구가 인간이 인간을 위한 인간의 주의로 뭉쳐서 인간을 정상으로 떠받드는 거짓 ㄴ 사상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온 세상에 거짓 사상이 득세하여 천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사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느님께만 있는 ㄷ 하느님 본위의 사상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나 ㄹ 그 전쟁이 인류를 파멸하고 맙니다.

애굽 바로 왕의 뱀을 잡아먹은 뱀이던 ㄷ 지팡이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를 상징하여서 ㄹ 하느님의 증거께 앞에 그 지팡이를 안치도록 하셨고 ㄱ 그곳이 성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至聖所)입니다.

ㄱ. 계16:9, 11, 21 ㄴ. 마4:8~9 계13:4~8 ㄷ. 계12:9 ㄹ. 계13:7 ㄱ. 계13:12 ㄴ. 요8:44 창18:1~15 ㄷ. 대상29:11 마6:13 ㄹ. 계11:7, 16:14, 19:19 ㄷ. 출7:12 ㄹ. 민24:17 ㄱ. 민17:4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이래, 슬픔과 괴로움과 원통함을 당할 때마다 갈망했던 구주(救主)이십니다. 인생뿐 아니라, 천지 만물까지 고대하는 ㄱ 구세주(救世主)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너와 내가 이웃이건만 남의 것을 빼앗아 더 갖고 싶어하고 남의 위에 올라서 부러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치고 죽입니다.

가인은 그 죄의 소원대로 아우를 쳐 죽였고 그렇게 하여 죄가 문에 엮드리는 죄의 임금이 되었으니,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네 발 가진 짐승이 엮드리듯 죄가 문에 엮드려서, 살생의 무력으로써 죄를 다스리는^ㄴ 짐승의 나라입니다. 죄가 없으면 세상 나라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해친 자는 그보다 더 큰 무력에 엮드려서, 죄인이 죄를 다스리는 무력의 위세가 세워집니다.

지금은 총이 아니라 핵무기입니다. 내가 내 쪽을 인식하여 자기 쪽을 위하는 의식 하나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소원은 다 같은 죄의 소원입니다. 서로 자기 쪽을 위하여 상대 쪽을 살생하나,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자를 더욱 수월하게 죽이는 죄로 발전하여서 세상이 받는 천벌 또한 참혹하여 집니다.

살인의 병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으로 죄가 발전하여 천벌이 칠 배에서 칠십칠 배가 되었듯^ㄷ, 말일에 이 세상을 장악하는 짐승의 표가 육백육십육입니다^ㄹ. 여섯이라는 수가 삼단으로 총대를 이룬 육의 덩어리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삼위와 대칭을 이룬 짐승의 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느님 쪽의 나라와 심판을 받는 인간의 나라는 일곱째 날의 그 일곱과 여섯째 날의 그 여섯의 차이입니다.

ㄱ. 롬8:19~23 골1:20 계5:13, 21:5 ㄴ. 창4:7 ㄷ. 창4:24 ㄹ. 계13:18

온 세상을 멸할 그 끔찍한 무력을 누가 무엇으로 만들었나. 모두가 민주주의의 혁명을 거치고 나온 강국들이 피지배자의 피땀을 빨아들여 이룩하여 놓은 무기들입니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고 선전하는 사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하느님을 섬기는 종자가 되고 이웃이 이웃을 서로 우대하여서는 그러한 위무(威武)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각기 군주가 있어서 군주는 백성을, 백성은 군주를 위함으로써 각 나라와 민족이 자결하여서는 인류를 덩어리째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이끌어야 할 사탄은 그의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고 하는 주의와 주장은 백성에게서 나온 백성의소리가 아닙니다. 권력투쟁을 하는 자가 백성에게 한 선전입니다.

주권은 종속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휘입니다. 신하(臣下)가 있어서 임금을 주상(主上)이라고 부르듯이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는 권리가 주권입니다.

오로지 백성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와 시행령만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지배체제 아래의 국민이 어떻게 거꾸로 주권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는 못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출마한 사람이 거꾸로 못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유세하는 것과 같은 기만입니다.

투표가 신성한 주권의 행사입니다. 국민은 강대한 쪽만이 국민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국민이건만 편을 갈라 한 표라도 많은 쪽이 되면 적은 쪽의 의사는 다시는 백성의 의사가 되지 못하고 상대 쪽 요구에 복종하여야 할 족쇄를 채우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것은 국민 사이에 없던 증오를 조성시킴으로써 국민을 찢어 놓고 끊임없이 악하고 적은 쪽을 밟아 희생시키는 악의 원천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백성의 장로들이 회의를 열어서 그리스도를 처형하기로 결정을 내려서 고소하였고^ㄱ 이에 총독은 여론을 묻는 방식으로 재판하였는데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은 시위로써 그리스도의 처형을 요구하였습니다^ㄴ.

원로들의 회의에서 다수결로 최초의 황제를 임명하였던 공화제도의 바탕에서 세워진 로마제국이 유대를 강점했던 시대였으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투표를 통하여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아무런 계시가 있지 아니한 마당에 천거된 두 사람 중 하나를 뽑아야 할 상황에 봉착하였는데 사람의 의사를 묻는 회의를 통하여 뽑지 않고 제비를 뽑아 사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따르는 종들로서 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천거는 할지언정 사람이 사람을 뽑고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점지하시고 임명하시는 것은 오로지 주이신 하느님의 권한일 뿐입니다. 어느 쪽이 하느님의 점지하신 쪽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제비 뽑았습니다. 조선 말에서는 제비를 뽑는 것을 점을 친다고도 말합니다. 점을 치듯 제자들이 사람의 의사를 비우고 주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 뜻을 다른 이들이 떠받들게 하기 위하여 편당을 짓는 행위만큼은 사람이 할 것이 아닙니다. 왼편이 있으면 오른편이 있고 앞이 있으면 뒤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쪽으로 치우쳐서 ㄹ 좌경이니 우경이니,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편당을 짓고 제 민족이 제 민족을 증오하며 죽인답니까. 이 당(黨)이라는 것이 조선의 비기에서 문자의 모양을 소두무족(小頭無足)이라고 일컬었던 살아자(殺我者)입니다. 평온한 마을이라도 그 중 두세 명이 결탁하면 나머지 개개인은 그 패거리에게 위협을 느끼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입니다.

ㄱ.마27:1 막15:1 요11:47 ㄴ.마27:20-24 막15:11 눅23:18 ㄷ.행1:15-26 ㄹ.신2:27, 5:32, 17:11, 20, 28:14 수1:7, 23:6

정당의 목적이 집권이고, 패거리의 힘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결성된 것이 정당이고 이 정당이 민주공화국의 기초입니다. 이 때문에 강이 둘러 있는 유역에서 발원한 아시아의 농경문화와는 달리, 지금은 때를 결성하여 바다에서 노략질을 일삼으며 살았던 고대 도시국가에서 그들 사회의 뿌리를 찾습니다. 패로 뭉쳤기 집집이 농사짓는 마을들을 습격하고 그 주민을 포박하여 노예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것이 도시국가의 원천입니다.

이 성도 있고 저 성도 있어서 백성(百姓)이요, 한 나라의 다 같은 백성이어서 민의라는 것이 애당초 있을 수 없으나, 당들이 결성되어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싸워서 국민의 대표가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나 투표에 불참한 국민은 국민이라는 이름만 도용당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정치가는 국민을 편을 갈라 놓고 선거전을 벌일 때면 서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선동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국민이라고 여기는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같은 국민입니다. 내전을 벌리는 자가 상대 쪽의 국민을 가리켜 그 국민을 위한 책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교한 자가 여자에게 하느님과 같이 된다고 부추겨서 미혹하였듯이 정직한 사람은 선거전에서 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주제에 찬란한 미래를 공약하여 국민을 속여야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속는 자가 속지 않는 자보다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그는 당선되는 것입니다. 기초 단체로부터 층층으로 뽑힌 대표가 있어서 개개인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에 의하여 지명되어서 지역민의 대표자로 뽑힌 의원들이 모여 다수결로 법을 제정합니다.

당이라고 하는 패거리가 없을 때는 개개인이 같은 조건이어서 공평이 개인 사이의 기준이었으나 패들이 생겨 서로 자기 편의 권익을 위하여 싸우는 마당에서는 한 표라도 많은 패거리의 권익만이 법으로 만들어져, 뭉치지 못한 모든 백성은 당에 의하여 끊임없이 제물이 됩니다.

농민이나 노무자들이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일당은 얼마이고 도시의 큰 건물에서 회의를 하는 자들의 일당은 얼마입니까. 법에 의한 착취가 층층으로 이루어져 도시가 세워집니다.

천자의 계시에 말일에 만국을 지배하는 짐승의 몸이 야수들의 덩어리이고 ㄱ 그 짐승의 머리에는 열 왕이라고 말씀하신 열 뿔이 있습니다 ㄴ. 무릇 나라를 가져서야 비로소 왕이건만 그 열 뿔은 왕은 왕이나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자들이 다만 그 덩어리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 자들이라고 ㄷ 하셨습니다.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아니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시한부로 임기 동안 위임받는 자들입니다.

약육강식을 하는 짐승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회원들의 머릿수로 법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는 다수결입니다. 시한부의 일시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열국의 통수권자들이 회합을 갖고 그들의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권세를 위임하여 ㄹ 천하 만국의 통수권을 가진 이 세상의 임금이 ㅁ 세워집니다.

하늘 아래 태어나서 인생이건만 정치 선전에 미혹되어, 자승자박한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피와 땀으로 살생의 무기를 만들어놓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한 개인에게 위탁하여 인간의 나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세계 각국의 수뇌들이 소집되어 ㅂ 이 세상 군대라는 군대는 모조리 동원하는 ㅅ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ㅇ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인간이 천군과 함께 육신으로 오시는 천자에 대항하는 전쟁입니다.

ㄱ.계13:2 ㄴ.계13:1 ㄷ.계17:12 ㄹ.계17:3 ㅁ.요14:30, 16:11 ㅂ.계16:13~16 ㅅ.계9:16 ㅇ.계17:14

인류가 인류 자신을 위하여 인류의 이름을 내어 걸고 하나의 체제로 뭉쳐서 하늘 높이 성(城)과 대(臺)를 ㄱ 쌓았고 하느님에게서 강림하시어 인간의 그 뭉침을 흩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대한 층대를 세웠고 그것이 그의 왕국의 상징입니다. 바로 후에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기, 말세에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셔서 ㄴ 말세의 국가권력이나 고대의 국가권력이 내용상으로는 같은 이 세상 권력입니다.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줄기의 성입니다.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인간이 만든 인간의 성에 의존하여 사는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셔서 사람이 있건만 그 근본을 무시하고 인간이 인간의 야망을 성취하고자 인류의 이름을 내세워서 수많은 인민의 피땀을 제물로 삼아 이룩하는 성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나를 위하여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고 내 나라가 국민의 이름을 팔아 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저 나라와 다투며 인간이 인류의 이름을 내세워서 뭉치면 결국은 천지의 주권을 가지신 하느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강림하셔서 인생이 하나로 뭉쳐 이룩하는 성을 심판하시고 그 인생들을 헤치시는 임이십니다 ㄷ.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당으로 결탁하여 집권하고 그 집권당은 또다시 각 족속과 나라 위에 군림하려고 결탁하여서 결국 온 천하를 지배하는 성을 세우나, 선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반대로 인간이 누구에게나 얽매지 않고 골고루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어 헤치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군주의 반대말입니다. 군주는 그의 권좌가 태어나면서부터 정하여진 자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군이 자신을 과시하고 선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편을 만들기 위하여 싸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ㄱ.창11:1~9 ㄴ.계17:18 ㄷ.창11:8

하느님께서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하셔서 흩어진 각 어족은 각기 자신의 군주가 있어서 민족들이 살아왔습니다. 군주에게는 백성이 갈라지는 것이 재난입니다. 권력이 쪼개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이 당 저 당으로 찢어져 자기네들끼리 싸우나, 아시아의 극동에 있는 작은 모퉁이에서와같이 한 혈통의 왕조가 오백 년씩이나 연이어 지속하여서 그 약소한 백성이 천 년을 내려오면서도 찢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군주는 어려서부터 다스리는 일을 교육받은 전문인이었기 지금처럼 저마다 한 번씩 국가를 다스려보는 정치 실험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가 자식들을 돌보는 것은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이듯 군주는 백성이 자신의 것이어서 백성을 돌보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속언으로 정직하고 양순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여서야 법이지, 사랑에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 없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세상이 하느님의 왕국입니다.

지금 세상은 법의 세상입니다. 싸우기 위하여 결성된 당에 의하여 선택된 의원들이 모여서 계속하여 쏟아내는 것이 법입니다.

사회가 시키는 것 외의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규제만 가득가득 채워서 전문법률가가 아니면 규제를 알지도 못합니다.

사회에는 부자도 많건만 교도소에서 부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유혹하여 놓고 실제로는 법정을 싸움 마당으로 만들어 놓았기 힘 있고 돈 있는 자가 이기는 곳입니다.

부자는 법을 이용하는 데 유능한 전문변호사들이 돈의 힘으로 많은 자료와 증인들을 만들어서 싸워주기 때문입니다.

빈한한 자는 길거리에 나아가 행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공중 질서를 위반하였다는 명목으로 불시에 검문을 받고 처벌을 받는 사람은 하나같이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체형을 받습니다. 법을 어긴 대가로 내야 하는 가난한 자의 출혈이 부자에게는 흔적도 없는 부담이어서 가난한 자에게만 고통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 법입니다.

허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의 규제가 자유를 선전하는 자들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진짜배기 속박이고 계급 타파를 선전하는 자들이 한도 없이 쌓아 올려 만들어내는 진짜배기 계급입니다.

꼭대기와 밑바닥은 갈수록 벌어져서 일당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층건물 속에 편안히 앉아서 하루에 밑바닥 일당의 수천 배를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 조선에는 양반(兩班)과 상인(常人)의 계층이 있었으나 그 계층은 지금의 계층에 비하면 비교조차 되지 못한 계급입니다.

양반이라도 벼슬을 못한 촌 양반 같이 상인보다 가난했던 양반이 많았으며 절대다수였던 백성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 더불어 살던 상인이었기 이웃과도 격이 없이 살고 어릴 적 친구가 죽을 때까지 격이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마다 격차가 있어서 입는 것도, 먹는 것도, 기거하는 가옥도 층층이며 사는 동네조차 차별화되어 서로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조직이 군대의 계급의 층과 같이 되어버린 계급의 세상입니다. 친구는 고사하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계층으로 벌어지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군주가 있어서 나라마다 자기네 옷을 입고 자기네 음식을 먹으며 자기네 고유의 풍속으로 살아왔기에 각 민족이 자결하고 자주 할 수 있었던 자기네의 권리가 있었으나 옛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류가 뭉치는 것을 흡드시어서 각 민족이 자기네 언어를 쓰면서 다르게 살아왔던 것이나 지금은 천하만국이 세계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이제는 세계전이 되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일차와 이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나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ㄱ

과거에는 나라들이 동서진영으로 나뉘어 싸웠으나 때가 되면 남방의 동맹체가나 북방 세력의 계략으로 무너지면서 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ㄷ 혼란이 불시에 발생하고 이때 철같이 강한 사회주의 동맹이 급자기 ㄹ 세계를 장악하면서 끝 날의 재난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貫盈)하여서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어 멸하시나 ㅂ 과거의 역사와 같이 어느 특정한 나라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꺼번에 멸망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이니 문화니 하는 말은 실상 밭을 갈며 살던 아시아에서 문자가 생기면서부터 유래한 말이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발달은 문화(文化)가 아니라 도시화하는 것을 저들은 인류의 발전이라고 말하고 동방의 사람들은 이를 서구화라고 일컫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문자를 돌 판에 새기셔서 ㄴ 인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룩한 문서는 인간의 고향을 동방의 에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동편에 ㅈ 있다고 하셨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동방 해 돋는 데서부터 이마에 하느님의 인을 맞는 자들이 일어나 ㅊ 그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되어 온 천하의 임금들과 결전이 ㅋ 벌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서는 왜 이토록 동방에서 시작하여 동방으로 끝을 맺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오대양을 넘어 천하를 장악하는 때, 전연 다른 계통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철혹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일곱째 날의 문명이 동트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비로소 밝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요 문명입니다.

ㄱ.마24:6 ㄴ.단11:5 ㄷ.단11:25 ㄹ.마24:7 ㅁ.단11:40 ㅂ.창6:5~8 ㅅ.창15:16 ㅇ.출24:12 ㅈ.창3:24 ㅊ.계7:2~4 ㅋ.계16:12~16

예수께서 당신을 해로 비유하셨기 ㄱ 예수의 탄생 때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물을 올려서 경배하였으나 ㄴ 반대로 죽임을 당하실 때는 서방에서 온 군병 손에 넘겨져서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동방의 에덴에서 발원한 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강이 둘러 있는 네 곳에서 네 교훈이 발원하였으나 그 네 근원의 근원은 생명나무가 있는 동방의 낙원이요, ㄷ 그 동방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또다시 동편에 ㄹ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동의 구스에 둘러 있는 큰 강에서 건져져 나온 모세도, 유브라데강 이 둘러 있는 중동의 마호메트도 도시화를 가르친 것이 아니요,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 이룩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를 받고서 하느님께 돌아가라고 가르친 스승들입니다.

낮을 들어 ㅁ 하느님의 낮을 보며 ㅂ 사는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요, 한 마디로 회개입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도시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이 그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이며 애굽이 그것입니다.

사회조직이 군대의 계급의 층과 같이 되어버린 계급의 세상입니다. 친구는 고사하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계층으로 벌어지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군주가 있어서 나라마다 자기네 옷을 입고 자기네 음식을 먹으며 자기네 고유의 풍속으로 살아왔기에 각 민족이 자결하고 자주 할 수 있었던 자기네의 권리가 있었으나 옛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류가 뭉치는 것을 홀으시어서 각 민족이 자기네 언어를 쓰면서 다르게 살아왔던 것이나 지금은 천하만국이 세계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이제는 세계전이 되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일차와 이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나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ㄱ

과거에는 나라들이 동서진영으로 나뉘어 싸웠으나 때가 되면 남방의 동맹체가나 북방 세력의 계략으로 무너지면서 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ㄷ 혼란이 불시에 발생하고 이때 철같이 강한 사회주의 동맹이 급자기 ㄹ 세계를 장악하면서 끝 날의 재난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貫盈)하여서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어 멸하시나 ㅂ 과거의 역사와 같이 어느 특정한 나라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꺼번에 멸망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이니 문화니 하는 말은 실상 밭을 갈며 살던 아시아에서 문자가 생기면서부터 유래한 말이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발달은 문화(文化)가 아니라 도시화하는 것을 저들은 인류의 발전이라고 말하고 동방의 사람들은 이를 서구화라고 일컫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문자를 돌 판에 새기셔서 ㄹ 인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룩한 문서는 인간의 고향을 동방의 에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동편에 ㅈ 있다고 하셨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동방 해 돋는 데서부터 이마에 하느님의 인을 맞는 자들이 일어나 ㅊ 그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되어 온 천하의 임금들과 결전이 ㅋ 벌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서는 왜 이토록 동방에서 시작하여 동방으로 끝을 맺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오대양을 넘어 천하를 장악하는 때, 전연 다른 계통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칠혹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일곱째 날의 문명이 동트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비로소 밝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요 문명입니다.

ㄱ. 마24:6 ㄴ. 단11:5 ㄷ. 단11:25 ㄹ. 마24:7 ㅁ. 단11:40 ㅂ. 창6:5~8 ㅅ. 창15:16 ㅇ. 출24:12 ㅈ. 창3:24 ㅊ. 계7:2~4 ㅋ. 계16:12~16

예수께서 당신을 해로 비유하셨기 ㄱ 예수의 탄생 때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물을 올려서 경배하였으나 ㄴ 반대로 죽임을 당하실 때는 서방에서 온 군병 손에 넘겨져서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동방의 에덴에서 발원한 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강이 둘러 있는 네 곳에서 네 교훈이 발원하였으나 그 네 근원의 근원은 생명나무가 있는 동방의 낙원이요, ㄷ 그 동방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또다시 동편에 ㄹ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동의 구스에 둘러 있는 큰 강에서 건져져 나온 모세도, 유브라테강 이 둘러 있는 중동의 마호메트도 도시화를 가르친 것이 아니오.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 이룩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를 받고서 하느님께 돌아가라고 가르친 스승들입니다.

낮을 들어 ㅁ 하느님의 낮을 보며 ㅂ 사는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요, 한 마디로 회개입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도시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이 그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이며 애굽이 그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불변의 법칙이요, 하느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세가 되어서 교통수단들이 빨라지고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여졌으며 그렇게 인종들이 섞여서 사는 강대국들이 나타났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은 식었습니다.

과학이 지식은 지식이나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정신의 영역 아래여서 미래를 예단하거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으나 믿음을 가진 자는 미래를 보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상이 성서의 예언대로 멸망하고 난 후에도 과연 인간이 탐구했던 그 과학이 지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혜는 인간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하여 얻는 기술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선한 이는 하느님밖에는 없는 것이오, 그 하느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말씀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영생에 이르는 생명 과(果)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ㄱ.창5:17 ㄴ.창5:20-22 ㄷ.창6:3 ㄹ.단12:4 ㅁ.단2:43 ㅂ.마24:12 ㅅ.마14:22-31, 17:20 ㅇ.마11:27 녹10:22
 ㅈ.마19:17 막10:18 ㅊ.창3:22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동방에서 일어난 가르침들의 근원도 하나입니다. 인(仁)이니 자비니 하는 교훈들이 서로 표현의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내용은 같습니다.

곧 상대를 위한 내 이쪽의 희생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이 곧 인생이 하느님을 사랑하여서 하느님께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바치는 ㄱ 희생이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남에게 대우를 받고 싶은 것 같이 그렇게 거꾸로 이웃을 대접하는 ㄴ 희생입니다.

그러나 도시라는 것은 반대로 남을 희생시켜서야 건설되는 것입니다. 도시 안에서 식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예제도의 법을 로마시민의 원로들이 만들어 노예의 고혈과 땀으로 웅장한 로마의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일생을 엮매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어서 그 약소한 백성이라도 뭉치지 말고 헤쳐서 젓과 꿀이 흐르는 ㄷ 땅을 부쳐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려 먹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는 사람이 살기에 그지없이 좋은 처소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민족을 순전히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약소한 민족마저도 열두 부족이 서로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땅을 조각조각 나누어 주시며 그곳에서 지키며 살라고 주신 하느님의 율례(律例)는 밭을 갈고 가축을 치는 농민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율례들입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민족은 오랫동안 백성을 무위(武威)로 지배할 수 있는 왕과 군사를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왕도 없고 군사도 없어서 타국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이 하느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면 으레 타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ㄱ.마22:37 ㄴ.마7:12 ㄷ.창11:1-9 ㄹ.여수14:1-5 ㅁ.레23:10, 신14:22

일어났고 멸망에 처한 그 백성은 다시 하느님께 빌었으며 그때면 으레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사(士師)가 일어나 민족을 지켰습니다.

오직 선하신 하느님께서만이 그 백성의 임금이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위에서 사람을 다스린다는 자체가 실상은 모순입니다.

인생에는 그 인생을 지도하시는 참 임금께서 ㄱ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보내주신 천자이십니다.

땅은 인생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어머니의 젖을 빨 권리가 있습니다. 두 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노동력은 실상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정직하기 짝이 없어서 사람이 심고 가꾼 대로 소출을 내어 주는 어머니입니다. 산과 들에는 각종 나무와 열매도 내어 주고 강이나 연못에는 각종 물고기도 내어 주어 사람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인간은 모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자신의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하여 사람을 부리는 일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부려 먹는 것은 소나 나귀 같은 가축이나 부려 먹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부려 먹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부자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아버지에게는 다같은 자녀이고 어머니에게는 다같은 자식입니다. 사람을 부려 먹는 자의 착취가 없으면 집집이 격차가 없이 골고루 어우러져 사는 것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 본래 가졌던 그 인정으로 채워져서 이웃집의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되어 공경하고 이웃집의 아이가 내 자식이 되어 보살피는 것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인생의 아버지입니다. 매월이면 하느님께 제사하는 월삭이 있고 또 월망이 있습니다.

ㄱ.사9:6 마5:35, 23:10 요18:37 ㄴ.창2:5 ㄷ.민28:11 ㄹ.시81:3

그와 같이 하늘엔 이십사 장로가 ㄱ 있어서, 봄이면 이른 비가 내리고 가을이면 늦은 비가 내리듯 ㄴ 이십사 절기마다 어김없이 기상이 변화하고 그 절기를 따라 땅은 땅대로 소출을 거두게 하여서, 하늘도 믿고 땅도 믿고 사람도 믿으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과 ㄷ 같습니다. 인생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으면 하느님께서 진노하시어 천기가 고르지 못한 벌을 받습니다. 수고하며 얼굴에 땀 흘리는 일은 인생이면 모든 이가 해야하는 숙명이어서 게으르면 궁핍하여 집니다. 조선의 백성 대다수가 농사지며 살던 때, 매년 춘궁이 닥치는 줄 알면서도 믿는 구석이 많아서 추수 후 긴 겨울을 놀며 지냈습니다.

요새 같이 일 년 열두 달을 쉬지 않고 어두우면 등불을 밝히면서까지 일을 해대었더라면 저마다 부자가 되었겠으나 그럴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자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제 먹을 것을 제가 차고 나왔다고 믿으면서 가난한 자라도 자식들을 줄줄이 생산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금 같이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어 피임하면서 가족같이 매어 일을 해대어야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서, 재물과 상관없이 사람이 연로하면 자식들과 손자들과 그들의 배필들을 수하에 군대와 같이 거느리고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노인네는 노인대로 흥얼거리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사사건건 동요가 있어서 노래 속에서 살았고 모내기를 하나 김매기를 하나 모두 같이 어우러진 노래가 없이는 일을 하지 아니했으며 벼를 짜나, 방아를 짜나 노래로써 일했고 엿을 팔고 젓갈을 팔아도 노래로 팔았으며 심지어 거지라도 노래를 불러서 동냥을 받았습니다.

ㄱ.계4:4 ㄴ.신11:14 ㄷ.마6:25 ㄹ.눅12:22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에 까마득한 옛적부터 한결같이 내려오다가 공화국들이 세워지고부터 사라진 풍속과 인정입니다.

서방의 제국들이 그들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천하를 침노하던 말엽에 동서양의 제국들이 조선 반도를 놓고 다투었고 일제가 승리하여 조선을 강점하였으나 일제보다 더 무서운 무력을 가진 공화국들이 나타나 일제를 누르고 그 땅을 찢어서 남북으로 두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황국이던 독일 백성이 전란 탓에 도탄에 빠졌던 때 조국의 새 번영을 역설하고 나온 당에 열광하였고 그 당의 선전에 속아 일차 대전보다 더 무서운 이차 대전을 일으켰듯이, 일제에 합방되었던 조선 백성이 일제가 패전 하면서 극심한 도탄에 빠졌기 남북으로 각기 자유당과 공산당의 선전에 호응하였고 마침내 그 당으로 말미암아 외세의 무기를 들고서 동족이 동족을 무참히 살상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黨)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백성을 죽였건만 그 끔찍한 동족 상전도 모자라, 지금은 찢어진 쪼가리에서조차 또다시 이 당, 저 당으로 갈라져 동족이 동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파 싸움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군주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세워진 서방의 공화국 중, 좌파는 인민의 평등을 위한 혁명이라고 선전하며 부자의 재산을 몰수해 공산화하였고 우파는 그보다 보수적이어서 부자를 여전히 귀족 같은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빈민을 차별하여서 계급적 경쟁을 부추겼기, 서로 동서 양대진영이 되어 전쟁하였습니다.

군주 대신에 인민이 주인이라고 선전하는 공화국이나 실재는 당이나 고용주의 지배를 벗어나면 인민은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노예가 되는 것이어서 인민을 속여서 제물로 삼기는 양쪽이 같습니다.

다 같은 국민이어서 당파가 없으면 싸움 일도 없건만 나라마다 서로 모순을 가진 좌나 우로 치우쳐서 패거리를 짓는 정당이 결성되어 서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주권을 쥐려고 싸우는 것이 공화국입니다.

바벨론이 머리가 되어 ㄱ 시작된 세상의 제국이 발가락으로 내려온 말기에 ㄴ 이르러 다민족 국가를 이루어도 ㄷ 서로 상반된 두 이념이 있어서 ㄷ 피차 화합할 수 없는 철과 진흙입니다.

두 황제로 나뉘었다가 한쪽이 다른 쪽을 삼켜서 한 황제가 통치했던 로마와 같이 말세에도 세계를 무대로 두 큰 세력이 있으나 한쪽은 나중에 세계를 제패할 쪽의 모략으로 ㄹ 쉽게 부스러지고 말 진흙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강대국들 세력 아래 민족마다 정당들이 결성되어서 서로 다투고 국가들이 서로 자국의 이권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경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공화국들이 출현하고부터는 세계가 전쟁 무대가 되어 제일 차 세계대전과 제이 차 세계대전으로 난리와 난리가 ㄹ 있었으나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먼저 진흙의 노선이 경쟁에서 앞서 국제적 패권을 쥐게 되나 진흙은 부스러지고야 말 세력이요, 그때가 이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ㄴ 세계적인 대혼란이 돌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병발하고 화폐 가치는 무너져서 장정의 일당으로 밀반 되 남짓밖에는 살 수가 없어서 ㄷ 만민의 생존이 절박한 때를 ㄷ 타고 철의 권력이 온 세상을 불시에 강압하면서 이 세상이 멸망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시기가 ㄹ 됩니다.

하느님께서 흙에서 인생을 취하시었기 지면의 흙으로 돌아갈 ㄷ 몸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 지면에 붙어서 어떤 것에도 예속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도록 하느님께서 이르셨건만 인생이 하느님의 면전을 떠나고 그 천하 지대본(天下之大本)의 지면을 떠나 재물의 종이 되어 인류를 마구 범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집단으로 묶이는 ㄷ 때가 멸망이 코앞에 이른 때입니다.

ㄱ.단2:37~38 ㄴ.단2:41~42 ㄷ.단2:43 ㄹ.단8:25, 11:25 ㄹ.마24:6 ㄴ.마24:7 계6:3~4 ㄷ.계6:5~6 ㄹ.마24:3 ㄷ.창3:19 ㄷ.마13:30

개인은 집단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일원이 되어야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단체는 단위가 더 높은 집단에 소속하여서 층층으로 거대한 덩어리가 된 것이 말세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진흙덩이는 부스러지고 말체제여서 먼저 세계화를 이루어놓고 결국에 가선 못 나라를 부수고 온 세계를 강압할 철의 체제를 열어줄 뿐입니다.

역사상 원로라고 하는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 법을 만들었던 공화제는 분란 끝에 결국 독재자 한 사람을 생산하고 말았듯이, 군주를 타파하는 하극상의 궤기로 시작하여 세상에 편만한 공화국은 전세계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상극하의 철권이 그 분란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우뚝 서는 상극(相剋)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 천하를 압제하는 때가 천자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하느님 나라의 임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의 체제가 송두리째 뽑히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상생(相生)의 나라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천자께서 먼저 인생을 섬기는 자로 오셔서 인생을 살리시려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니 인생도 그같이 하느님과 어린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다가오는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당부입니다.

상생하(上生下)하시고 하생상(下生上)하여서 하느님과 인생이 하나를 이루는 길이 그리스도의 주의요사상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니까 남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있는 이래 인간이 하느님을 떠남으로써 인류를 지배하여 오던 상극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능력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신천지가 기필코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ㄱ. 계13:1~2 ㄴ. 단2:40 계13:11~18 ㄷ. 단11:16 계13:3~5 ㄹ. 요14:30 ㅁ. 단 2:34~35 ㅂ. 마20:28 ㅅ. 마16:25 ㅆ. 요15:13~15 ㅇ. 요17:20~23 ㅈ. 계21:4

지금 세상은 국가가 부여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만이 행세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국가의 권한이 인생의 출생 신고부터 시작하여서 사망증명까지 일생의 모든 과정을 장악하는 권세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매를 들 것을 권고하였으나 지금의 공화국이 부여하는 인권은 매질한 부모나 스승을 국가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가축을 잡아먹을 권한을 주셨으나 국법을 내세워 자신을 낳고 기르는 부모를 고소할 수 있지만, 그 인간 자신이 수고하며 기르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도살하면 구속되듯이 인권이 아니라 실상은 국가의 권한입니다.

신생아를 모태로부터 받을 때부터 국가가 상표를 붙이듯 국가의 소유라는 딱지를 붙여서 부여된 시민권을 그들은 인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인권은 소위 철학이라며 학문을 빙자하여 신은 죽었다느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느니 하며 공공연히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류역사 누천년 동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의식의 변화가 금세에 이르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 사상이 세상에 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역경을 만나면 하늘이 무심하다며 하느님을 원망은 하였으나 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 더 하느님을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소위 예술이랍시고 공공연히 불륜을 유포하고 음란을 선정하여 만인이 색욕을 쫓도록 유혹하는 자유와 권리이고 소위 사생활이랍시고 이웃과 담을 쌓고 자신의 비행을 감추는 권리여서 결국 육체의 욕망으로만 사는 짐승이 인류와 도의를 명하신 하느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짐승 나라의 권한입니다.

ㄱ.잠13:24, 29:15 ㄴ.창9:3 ㄷ.민14:27 ㄹ.창6:3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무력의 씨앗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던 인생을 국가에서 발행하는 돈만을 쫓게 하여서 사람의 천부적인 자유와 권한은 남김없이 빼앗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오던 미덕은 철저히 차단하는 권력으로 컸습니다.

백성이 서로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투쟁하며 싸워야 그 사이의 판결을 행사하는 국가의 권한이 생성하고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그 권력은 강력하여져서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가 법으로 단속되어 국가에서 허가하는 증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ㄱ 노예가 될 뿐입니다.

서양의 역사에는 백성이 토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군주가 국토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친족과 종교인들에게 그 영토를 분배하여서 백성을 부려 먹도록 하였기 자기의 세력을 갖게 된 지주들이 항구적인 자기네 권리를 위하여 저들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거꾸로 군주에 도전하던 때, 그들이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민주라는 개념을 유포하였습니다.

가축처럼 매여 일만을 하여야 했던 농민들이 농토를 떠나 지주들이 사는 곳으로 잠입하여 잡일을 하는 자들이 불어났고 토지 소유의 상속 지분으로 돈과 하인들이 있어서 할 일 없던 지주들과 그 인척들은 불로소득의 자금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돈놀이하거나 그들을 고용하여 이윤을 남기는 주인 노릇을 하였기에 그들의 성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토지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동서양이 다 같이 농민의 땀을 착취하여서 권력의 밑거름을 삼았으나 동양은 같은 군주국이면서도 서양과 같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땅입니다. 나라의 영토는 군주의 것이면서 백성의 것이어서 백성은 논밭을 사유했고 나라의 강토를 자기의 것으로 사용할 천부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ㄱ.계13:17 ㄴ.레25:23 ㄷ.단8:5~8, 21

백성은 산과 들에서 마음대로 나무를 하고 나물을 캐었고 냇가나 호수에서 마음대로 고기 잡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돈이면 산도 사고 임야도 살 수 있지 아니하여서 어디를 가나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을 수 없었고 사용허가나 사용료가 있을 수 없었으니, 백성은 자유와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이 지녔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백성은 백성으로서 군주를 대하는 백성의 도리가 있고 군주는 군주로서 백성을 대하는 군주의 도리가 있어서 왕과 백성이 군신 일체라고 하는 도덕의 규범이 전승되어 내려왔기, 백성은 공유와 사유의 개념을 하나로 가지고 국토를 자기 집 뜰과 같이 사용하였건만 그 하나를 토막 내어 한쪽은 토지를 공유화한 것이 좌익혁명 이었고 또 한쪽은 돈으로 토지를 사유하도록 하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 우익이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상 자체가 미혹입니다.

인민의 정치라고 하는 말 속에 사람들이라는 서방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자기네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자기네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면 국제 간 갈등과 전쟁만을 일삼게 되어서 약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뿐입니다.

국가가 이기주의로 뭉친 집단이 되면 그 국가에 속한 시민이 그 주의와 상반된 그리스도의 이타주의 7 사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의 교회는 형제들이 각기 사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한 가족이었으나 2 지금은 교회의 부동산마저 사유재산이 되었고, 사도들의 교회는 빈핍한 형제들에게 돈을 주는 모임이었건만 2 지금은 빈핍한 신도들이 거꾸로 돈을 바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이른 2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2 남보다 잘살고 높이 되려는 자기네들의 권익과 축복을 위한 단체로 변질하였습니다.

7.마5장 전체 2.행4:32 2.행4:34~35 2.마4:17, 10:7 2.약4:4 요일2:15

하느님은 그 단체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그 단체의 신이 되어서 그곳에는 감사와 찬송만 있고 애통의 소리는 7 찾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성스럽게 꾸미는 종교의 위선이 온 세상에 퍼져서, 세상은 온통 자기 쪽을 자랑하면서 서로 돈을 자기 쪽에 내놓으라고 유혹하는 선전과 광고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선전이 없으면 사람들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자연스럽게 공정한 평가가 세워지나, 그 공정을 밀어내고 서로 자기네가 자기네 것이 으뜸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쪽이 옳다고 유세하는 선거전 자체가 유혹의 경쟁입니다.

외세를 끌어들이어 왕을 은폐시키고 자신이 집권하던 정치인이 국왕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며 외세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열사를 기념하는 것과 희생당한 선지자나 의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던 2 종교인의 행위와는 같습니다.

자기 같은 자 때문에 의인들이 희생을 당하였건만, 거꾸로 그 의인을 기념하여서 자신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속이면 사기꾼이 되지만 대중을 속이면 위인이 되고 한두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이 되지만 수많은 국민을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전쟁에서 많이 살인한 사람일수록 훈장을 주고 영웅이라며 칭송하나 전쟁이라는 것이 한쪽만 살상자가 나는 것이 아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실상 양쪽 인명을 살해하는 살인마이고 그 살인마를 세상에 속한 나라의 사람은 위인이고 영웅이라며 떠받듭니다.

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나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나 그들의 소원은 2 다 같은 한 종류인 바, 곧 죄의 소원입니다.

모두가 자기 쪽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여왔던 모든 일을 이제는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7.마5:4 눅6:25 요16:20 2.마23:29 2.창4:7

돈 없으면 아이를 낳거나 기르며 부모를 모시기는커녕 자신마저 오도 가도 못하는 몸이 되어서 사람 구실을 평생 못하는 세상입니다. 인권을 내세우는 곳일수록 사람의 천부적인 권한은 있는 대로 박탈되고 대신 돈의 권한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서로 상반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ㄱ.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내 쪽이 양보하고 내가 가진 것을 헐어서 남을 보태주고 내어주는^ㄴ 행실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가 발행하는 재화로써^ㄷ 사람을 지배합니다.

돈에 팔리는 자가 노예입니다. 모든 세인이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백성 개개인이 도덕을 버려야 법을 만들어 지배할 수 있고 저마다 돈을 위하여 눈에 핏발을 세우고 뛰어야 세금이 발생하여 지배체제가 강대하여 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을 여유 있는 생활이라고도 말하나, 어찌하여 갈수록 사람이 허겁지겁 시간에 쫓기며 일생을 정신없이 살아야 하는 것일까.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서로 상대를 위하여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사이가 더는 아닙니다. 속아서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빼앗기었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빼앗기고 친족과 친구를 잃고서 살면서 각자가 조직에 매여 꼼짝없이 경쟁하는 데 노력과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속고 있습니다^ㄷ. 속아서 자급자족하던 자주성을 잃고 노예가 되어서 더는 자기의 시간도 없고 자기의 삶도 없게 되었고 군주가 있어서 자주 하고 자결하였던 나라들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통화를 움직이는 극소수의 손아귀에 예속되고 말았습니다.

세인이 악착같이 구하는 것이 그 극소수가 조종하는 숫자일 뿐입니다.

ㄱ.마6:24 눅16:13 ㄴ.마5:39~42 ㄷ.마22:19~21 막12:17 눅20:25 ㄹ.계20:3

어느 한 곳의 재난이 세계경제 전체에 미치는 체계가 되었기 성서는 진흙덩이라고^ㄱ 하셨습니다. 불현듯 허물어져 세계적 전란이 발생하고 이에 열국의 통수권자들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위임권을 주어서^ㄴ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그 정부가 각인에게 매겨주는 숫자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도록^ㄷ 통제되는 때가 이 세상 나라의 말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이 사람 위에 앉아 일방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인간 나라를 혁파하시고 하느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ㄷ 오시는 것이오, 이것이 인간의 진짜 해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의 율법입니다. 세상과는 거꾸로, 누구나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노는 것이^ㄹ 하느님의 법입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 정월 십사 일 밤은 유월절(滄越節)이요 그 밤을 유월 한 대보름은 무교절(無酵節)이라는 명절입니다^ㄴ. 이레 동안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며 명절을 지키다가 삼 칠일 되는 정월 스무하루 날 성회(聖會)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아니 하는 거룩한 날이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칠이 되는 사십구 일 동안은 칠칠절(七七節)이어서^ㄷ 지키고, 가을이 되어 곡물을 거두어들이는 달의 보름은^ㄹ 수장절(收藏節)이라고 하는 한가위입니다^ㄷ.

이레 동안을 제사하며 팔 일째가 되면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즐겁게^ㄷ 노는 것으로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년이 이르면 아주 일 년 내내 놀라고 하신^ㄷ 법입니다.

칠칠 절과 같이 칠칠 년이 있는 후에 오는 해는 회년(禧年)입니다.

회년이 이르면 돈을 주고 샀던 토지를 팔았던 자에게 모두 돌려주는^ㄷ 해이고 몸값을 주어서 매여 있는 하인들을 다시 본래대로 풀어 주는 것을^ㄷ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모두가 원시의 본래로 반본(返本) 하여서 해방입니다.

ㄱ.단2:42 ㄴ.계17:13 ㄷ.계13:16~18 ㄹ.단2:34, 44 ㅁ.출20:10 ㅂ.레23:6 ㅅ.신16:9~10 ㅇ.레23:34 ㅈ.출23:16 ㅊ.레23:40 ㅋ.레25:3~5, 20~22 ㅌ.레25:28 ㅍ.레25:39~41

성서는 언약의 글입니다. 언약은 장차 반드시 이행할 일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날이 이 해방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ㄱ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이 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때를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낙원에서 놀고먹으며 살던 그 본래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입니다.

인생을 구속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인생의 죄값을 물어 주신 것이오 ㄴ. 그 구속이 코앞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율법에 지켜야 할 명절이 모두 농사와 연관이 되어서 지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씨를 심으시고 ㄷ 그 알곡들을 거두시는 당신의 씨 농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오.

지금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알곡을 거두어들이시는 가을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점지하신 자를 구속하시는 것은 ㄹ 세상 만국을 멸하시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장자는 살아나는 반면, 애굽의 장자는 죽는 날이 어린양의 유월절입니다.

진실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씨앗들을 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하시어, 태초에 심으셨던 ㄴ 그 신선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마는 것이 바로 주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인생이 하느님만 잘 섬기면 먹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상제께서 축사 한마디를 하시고는 떡 다섯 덩이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ㅁ. 하느님께는 그러한 이적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아니고 남녀노소 온 백성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자그마치 사십 년을 살았습니다. 농사를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탈취하여 산 것도 아니오. 그냥 하느님의 이적으로 산 것입니다.

ㄱ. 마11:28 ㄴ. 계5:9 ㄷ. 요12:24 ㄹ. 마24:22 막13:20 ㅁ. 창2:8 ㅂ. 마14:21

유대인들이 민족의 스승으로 받드는 자는 율법을 전하여 준 모세이나, 그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그들은 애굽에서 구출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앉았으면서도 여전히 고난 중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ㄱ 것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던 그 백성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였으나, 그가 말년에 이르기를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터이니 너희는 그를 들으라고 유언하였습니다 ㄴ.

모세가 율법을 다 전하였건만 또 무슨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오.

모세가 그 백성을 진실로 구원한 자면 그러한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백성이 구원을 받고 짓과 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앉았어도 그 백성에게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이 주 하느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주를 섬김으로써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ㄷ.

실제로 조상이 전연 우러러보지 아니하였던 ㄹ 이방의 임금들을 그들의 왕으로 섬겨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임금을 사형에 넘겼습니다.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일 년이면 열두 달을 꿈쩍없이 지배자들에게 피와 땀을 바쳐서야 연명할 수 있는 민생의 괴로움은 애굽이 유대 민족을 지배하던 때나 예수께서 오셨을 때나 일반인 것이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슬렘도, 미륵의 출세(出世)를 기다리는 불자도, 심지어 정도령을 기다렸던 옛 조선의 선비들도 유대교 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종장들조차 모세와 똑같이 구세주를 증언한 것이어서 많은 신도가 구세주를 고대합니다 ㅁ.

그들의 교주가 아무리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각자이고 대각을 한 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ㄱ.마11:3 막15:43 눅3:15 ㄴ.신18:15 ㄷ.신31:16 ㄹ.신32:17 ㅁ.요4:25

구세주를 갈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역시 메시아의 출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과거에 오셨어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력을 가진 강자의 세상이고 빼앗아 가진 자의 세상이어서 약하고 가난한 민생의 신음과 한탄은 옛 로마의 사회상 그대로이며 사회의 온갖 비리와 범죄가 또한 옛 로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오셨던 그 예수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이요, 곧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ㄱ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과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하시었고 ㄴ 친히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어서 영생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ㄷ 만인의 눈이 볼 수 있는 그 영생의 몸 그대로 이 세상에 돌아오시겠다는 ㄹ 언약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중에 승천하셨기 ㅁ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 인생에 주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ㅂ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ㄷ 만인의 죄를 대속(代贖)하시는 제물이 되셨으며 말씀대로 ㄹ 하느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말씀대로 ㅅ 다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구주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선지자 모양 보내심을 받아서 ㅈ 오신 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종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그 모든 선지자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 하시고 ㅋ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부리는 종은 다릅니다 ㅌ. 모세도 이적을 베풀었으나 하느님께서 일일이 시키시는 대로 심부름 노릇을 하여서 이적을 하였던 모세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적재적소에서 자유로이 이적을 행하신 그리스도와는 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ㄱ.마1:18~25 ㄴ.요11:43~44 ㄷ.요일1:1~2 ㄹ.마24:30, 26:64 행1:11 ㅁ.행1:9 ㅂ.사7:14 미5:2 ㅅ.사53:1~12 ㅆ.시110:1, 5 ㅈ.사31:4, 66:15 단2:34, 7:13 ㅊ.마10:40 눅4:43 요4:34 ㅋ.요5:39 ㅌ.마21:33~39 요1:41, 4:2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라고 ㄱ 하면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말씀을 전하였던 모세나 선지자들과는 달리,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ㄴ 하시면서 당신의 계명을 인생에 주시고 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ㄷ 하시어서 당신의 권세로써 인생의 죄를 사하시는 아들과는 서로 위상이 다릅니다.

옛 로마가 인류의 역사에서 찬란하고 웅장했던 것은 그만큼 그 이면에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희생을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노예의 혹독한 노역이 없이는 로마의 그 높고 화려한 돌기둥 하나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무력으로 침략을 당하고 빼앗긴 자들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로 말미암은 밑바닥의 비참함이 토대가 되어서 위로 겉모양의 웅장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빈곤한 서민층은 노역에 시간과 체력을 있는 데로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기 범죄 할 여유조차 갖기 어려우나 이들의 피땀을 빼는 부유층의 부도덕은 차마 말로써 형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류층일수록 옛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변태적인 남색(男色)은 물론 근친에까지 음행과 모함과 살인을 일삼았던 암투의 사회였으나, 가진 자들이 자행하는 비행이나 만행은 일언반구 하나 기록될 수 없이 묻혀서 감추어진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지금도 그 사회입니다. 도시의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의 이면에는 일생을 꼼짝없이 매여서 일만 하여야 하는 서민의 시달림과 고초가 있고 빈민의 마른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말라가는 ㄹ 사회상, 이는 분명히 밝아지는 세상이 아니요, 암흑의 세상입니다. 갈수록 층층은 높아져서 사람 사이의 차별이 한없이 벌어지고 사람 사이의 경쟁과 투쟁으로 서로 미워하고 사취와 폭력과 음란과 도박과 마약이 범람하는 것이요.

ㄱ.신9:10 사17:3, 6 ㄴ.마5:20, 22, 28, 32, 34, 39, 44 ㄷ.마9:2~6 ㄹ.마24:12

범죄가 증가할수록 국가의 공권력은 강대하여 집니다.

말일의 그리스도의 일군들이 그들의 주와 순교자들의 계통을 그대로 밟아 세상을 책망하다가 ㄱ 미움을 받고 ㄴ 처형 당하는 ㄷ 성을 『영적(靈的)으로』 라고 일컬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ㄹ 하시어서 그 큰 성을 풀이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전하시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ㄱ 있고 영적으로 사물을 살필 줄 하는 눈이 ㄴ 있는 자는 도시화를 한 현대의 사회상이 곧 옛 소돔이고 옛 애굽이며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군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침공하고 총독을 파견하여서 지배하였던 체제하에서 그 체제의 반역이라는 ㄷ 죄명으로 처형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속국을 식민지(植民地)라고 하듯이 곡식을 심어서 자기 땅에서 나는 소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국의 인민에게서 흐르는 땀이 저들의 양식이고 그 인민이 노역하는 마당이 저들의 밭입니다.

꼭 사람을 포박해서 끌어다 놓고 부려 먹어야 노예가 되고 그 노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공의 목적은 한 마디로 착취를 위한 것이고 그 빼앗고 빨아들이는 도구가 제국에서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ㄹ.

정복자는 사람의 품이나 곡식을 화폐로 값을 매겨 놓고 단지 돈만을 찍어내면 됩니다.

인구조사로써 ㄷ 파악되는 사람의 머릿수가 그가 매해 세금으로 긁어 들이는 수익이 되고 그 세수만이 아니라 돈을 마음껏 찍어내 마구 써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백성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ㄱ.눅3:19 요16:8 고전1:8 엡5:11 계11:4~6 ㄴ.마10:16~23, 24:10 요15:19, 16:1~4 ㄷ.단11:33 계11:3~10 ㄹ.계11:8 ㄱ.마11:15 계2:7, 11, 17, 29 ㄴ.마23:16 계3:18 ㄷ.요19:12 ㄹ.마17:24~27, 22:17~21 ㄷ.눅2:1

이것이 소돔과 같은 도시 국가가 세워진 이치이고 옛 이집트의 장엄한 피라미드와 옛 로마의 웅장한 성곽이 세워진 이치입니다.

인생이 자연 속에서 자급하고 자족하던 그 자주성을 빼앗기고 이제는 칸칸이 막힌 분야 속에서 기계의 부속 같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노역을 하여야 먹을 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정이 온 마을에까지 미쳐서 이웃이 사촌이 되어 한 식구같이 살고 또 멀리 사는 친척과 친지에까지 미쳐서 가족같이 마음을 쏟으며 산천에까지 미쳐서 자연을 노래하였던 인생이 이제는 한 덩어리의 조직 속에서 미약하기 그지없는 분자의 분자로 타락하였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이 착취 위에 착취로 층층의 계층을 이루어서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위의 짐을 떠맡아, 무거운 짐을 ㄱ 지고 신음하는 차별의 거대한 조직 사회입니다.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며 돈 때문에 인간이 별별 못할 짓을 마구 해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도덕이 실종되는 대신에 음란과 기만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주화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나 상징과 함께 로마의 황제가 새겨져 있듯이, 지금의 세계 공용 화폐에 그것을 발행한 국가와는 전혀 다른 애굽의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는데 그 정상이 눈 하나로 되어 있는 사각의 피라미드입니다.

로마나 애굽이 숭배하였던 태양 신을 ㄹ 박아 놓은 것이고 그의 아들을 자처하는 임금의 동서남북 온 천하의 지배자임을 의미한 것이어서 말일에 아주 잠깐 ㅁ 세계를 지배할 이 세상 임금의 ㅂ 상징입니다.

말세에 자용을 거루며 정치협상을 벌리던 ㅅ 야수 중 한쪽이 상대방을 모략으로 무너뜨리고 ㅇ 세상이 한 사람의 수뇌를 갖습니다.

ㄱ.마11:28, 23:4 ㄴ.마6:24 ㄷ.눅16:13 ㄹ.막12:16 ㅁ.레26:30 ㅂ.민25:4 ㅅ.왕하23:11 ㅆ.사17:8 ㅈ.계17:10 ㅊ.요14:30 ㅋ.살후2:3 ㅋ.단11:27 ㅇ.단11:25

그는 전쟁의 승리로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궤환을 통하여 집권하는 ㄱ 것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의 권력자로 선출되는 것이요, 선거제도가 있지도 않았던 때, 이 세상의 지도자가 그의 거짓된 선전과 계략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양대 진영 중 한쪽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모든 나라의 권력구조가 상처를 입는 혼란 가운데서 한 국제적 정당이 홀연히 재기하여 일어나 ㄴ 만국을 향하여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선언하고 세계에 그 원년을 선언함으로써 ㄷ 인류의 구세주같이 행세하는 자가 출현하여서 그를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는 결국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최후의 전쟁을 ㄹ 일으키고 마는 것이어서 그는 실상 그 전쟁을 위하여 태어난 인물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의 나라 임금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이 세상 임금과의 전쟁이 성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서가 들짐승의 미혹으로 시작해서 그 짐승이 멸망하고 마는 전쟁의 줄거리입니다. 그 결국이 승리자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함으로써 이 땅 위에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느님의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성서입니다.

온 인류를 미혹하여 그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갈 적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서 세계를 장악하고 그의 과업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상은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격하게 진보하여 결국은 개인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가 박히고 그 표를 통하여 모든 문물이 유통되는 한 덩어리의 조직사회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뭉치고 또 뭉쳐서 결국 꼭대기의 눈 하나가 온 인류를 감시하고 조종하며 개개인도 그 조직의 분자가 되어서 누구 하나 꿈쩍 못하고 노예가 되어 움직여지는 인조(人造)의 사회입니다.

ㄱ.단8:25, 11:21 ㄴ.계13:1~8 ㄷ.단7:25 ㄹ.계16:16, 19:19

이것이 곧 인간이 만들어 세운 것을 인간이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ㄱ. 하느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이 세상의 바벨탑입니다.

해 뜨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印)을 가지고 올라옴으로 ㄴ 말미암아 하느님의 인 맞는 자들이 출현하여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그 왕들과 ㄷ 온 천하 임금들과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만왕(萬王)의 왕이신^ㄹ 어린양과 말세에 반드시 잠깐 천하의 권세를 쥘 이 세상 임금은 하나에서 열까지가 서로 반대입니다.

칭호만은 같은 지도자이나^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임금이시오.
 어린양을 따르는^ㄴ 그의 만왕은 상제께서 점지하시어^ㄴ 왕들이 되는^ㅇ 자인 반면, 이 세상 임금은 아래에서부터 백성이 위임하여서 통치권을 시한부로 얻게 된^ㅈ 지도자들이 또다시 그들의 권세를 한 사람에게 위임하여서 천하의 통수권을 행사하는 세계 공화국의 지도자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과의 전쟁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인종 전이 아니고 동방과 서방의 지역 전쟁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동방은 그러한 인종과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다고 하셨듯이 주의와 사상입니다.
 지금은 동양인도 서방의 주의와 사상으로 서구화되어서 서양인이 되어 있는 세상이나 이제는 동이 트는 때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새 문명이 밝아 나 새 세상이^ㄷ 이루어지는 개혁이 목전에 당도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보내신 상제의 말씀으로 무장하고^ㅋ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지배체제에 맞서는^ㅌ 일꾼들이 그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ㅍ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편과 적 그리스도 편^의 전쟁입니다. 계시의 말씀으로는, 여자와 들 짐승의 전쟁입니다^ㅎ.

ㄱ.계13:8, 15 ㄴ.계7:2 ㄷ.계16:12 ㄹ.계17:14 ㅁ.마23:10 ㅂ.계14:4 ㅅ.요15:16 ㅇ.마19:28 계5:10 ㅈ.계17:12~13 ㅊ.마19:28 ㅋ.엡6:13 ㅌ.계11:7 ㅍ.눅21:28 ㅎ.창3:15

서양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과 싸우면 야벳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셈의 장막에^ㄱ 거하는 자가 되어 하느님께서 그의 하느님이^ㄴ 되십니다.
 그는 분명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ㄷ 되고 동양인도 이 세상 편이면 그대로 그리스도와 반대편의 씨알이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인(印)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ㄹ 천사의 계시대로 그 인을 맞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ㅁ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저희의 임금께서^ㅂ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 그들도 같이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까지 심판하고^ㅅ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릴 왕들이오^ㅇ.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에 대적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이^ㅈ 한 덩어리가 됨으로써 이 세상 나라는 종말을 고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느님께서 계시는 이상, 천벌은 내리고야 맙니다. 그것이 인류가 겪어왔던 역사이고 지금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재앙이 역사상 어느 도시나 국가의 멸망이었지만 이제 더는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나 저 나라, 동방이나 서방이나 할 것 없는 세계의 문제입니다.
 창세 이래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하였던 대환난(大患難)이^ㄷ 현 인류의 목전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날을 거듭거듭 예고하신 것이 성서의 예언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때 강림하시면서 당신의 점지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하시고^ㅋ 이 땅에 좌정하시어^ㅌ 친히 정사를 잡으심으로써^ㅍ 신천지를 개혁하시는^ㅎ 님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ㄱ.창9:27 ㄴ.창9:26 ㄷ.계16:12 ㄹ.계7:2 ㅁ.계7:4 ㅂ.계1:5 ㅅ.마19:28 ㅇ. 계20:4 ㅈ.계16:14 ㅊ.마24:21 ㅋ.마24:31 ㅌ.마5:35 ㅍ.계11:17 ㅎ.계21:5